

청년생활

5

1963



락원 기계 공장 청년 직장 리 기봉 천리마 작업반원들은 五〇 여건의 기술 혁신안과 二〇 여건의 각종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엑쓰까와똘 대당 조립 시간을 二〇〇 시간 더 단축하여 일별계획을 초과 완수하고 있다



구성 기계 공장 김 성수 작업반원들은 二〇〇톤 프레스를 제작하여 손로동을 기계화 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훨씬 높이고 있다

청년생활

1963. 5 (164)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차 례

표지 1면; 광맥을 찾아서

혁명 전사의 계급적 립장

전 례 호

사람들은 사물과 현상을 대함에 있어서나 사회 정치 생활에 대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와 태도를 가진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은 응당한 일로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저주로운 죄악으로 간주한다. 국제 국내 정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나 정의와 부정의성과 악에 대한 견해도 사람에 따라 각이하다.

따라서 그들의 행동도 각이하지 않을 수 없다. 착취와 억압을 응당하고 옳은 현상으로 인정하는 자는 착취와 억압의 제도를 고수하려 하며 착취와 억압을 죄악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를 청산하기 위하여 투쟁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사물과 현상에 대하여 각이한 견해와 태도를 가지며 각이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과 립장이 각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각이한 립장을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계급적 처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통 립장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느 계급의 편에 서 있으며, 어느 계급을 대표해서 말하며, 어느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가라켜 말한다.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여서 사회에서 고립되여서는 살아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계급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례외 없이 어느 한 계급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치 경제 생활상 처지는 각이하며 따라서 그들의 사상과 견해, 관점도 서로 다르지 않을 수 없다.

립장이란 사람들의 사상과 관점의 집중적 표현으로써 그것은 사상 의식이 계급성을 띠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급적 성격을 띤다.

물론 사람의 립장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다. 그의 사회 경제적 처지와 사회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자체의 사상 의식의 개조에 의하여 부단히 변화한다. 어떤 개별적인 사람이 비록 비근로 계급 출신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사상 의식을 개조하고 로동 계급의 혁명적 사상 의식을 접수한다면 그는 로동 계급의 립장에 서서 진보적 역할을 놀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로동 계급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급적 처지를 망각하고 부르죠아 사상 의식의 침습을 당하게 된다면 로동 계급의 립장을 상실하고 자기의 진보적 사명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립장은 곧 어느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며 사회 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노는가 하는 문제를 규정해 준다.

착취 계급의 립장은 근본적으로 반동적이다. 그들은 날로 몰락해 가는 저들의 운명을 건져 보려고 사물의 진리와 사회 발전 법칙을 극력 외곡하며 그를 거역해 보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의 립장은 항상 관념론적이며 반동적이다.

세상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립장은 로동 계급의 립장이다. 이것은 로동 계급의 처지와 특성, 그들이 지닌 력사적 사명으로부터 설명된다.

로동 계급은 그의 계급적 처지로 보아 혁명성이 가장 강하고 발전하고 전진하는 계급이며 그들이 혁명 투쟁에서 잃어 버릴 것이란 착취와 억압의 철쇄뿐이며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동 계급은 자본주의 제도를 청산하고 전 세계에 압박과 착취가 없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자기의 력사적 사명으로 삼는다. 따라서 로동 계급의 립장은 사회 발전 법칙과 일치한 혁명적 립장이며 인류의 념원과 근본 리익을 반영한 선진적 립장이다. 또한 로동 계급의 립장은 맑스-레닌주의에 립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과학적인 것이다.

당과 혁명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혁명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로동 계급의 립장에 튼튼히 서야 하며 이 립장을 확고히 고수해야 한다.

오늘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와 직접 대치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우리 혁명의 복잡성과 간고성, 국제적으로 악랄화되고 있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그의 앞잡이들인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흉악한 책동, 그리고 우리의 의식 속에 아직도 낡은 소부르죠아 사상 잔재가 남아 있는 사정 등은 우리의 혁명적 계급 의식을 더욱 높이며 계급적 립장을 확고히 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의 압박과 착취를 직접 체험하지 못하였으며 간고한 계급 투쟁의 시련을 겪어 보지 못한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되고 있다.

× ×

선진적 로동 계급의 립장은 자기의 모든 것을 로동 계급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립장이다. 즉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로동 계급의 성스러운 혁명 위업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혁명적 립장이다.

로동 계급은 자기 계급의 해방이 없이 개인의 해방이 있을 수 없으며 자기의 리상도, 진정한 행복도 실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의 선진 투사들은 자기의 전 생애를 로동 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 위업에 바치며 혁명의 리익이라면 개인의 그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견결한 혁명적 립장에 선다.

로동 계급의 혁명적 립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의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당의 로선과 정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 들어 제때에 정확하게 관철해 나가는 불요불굴의 혁명성에서 표현된다.

맑스-레닌주의 당은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로동 계급의 립장과 리해관계를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혁명의 매 시기 전체 인민이 나갈 방향과 방도를 규정해 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태도 여하는 사람들의 계급적 립장을 검열하는 시금석으로 된다.

로동 계급의 참된 전사는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 들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악하게 관철해 나가는 불굴의 혁명성을 발휘한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말하는 당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그저 호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당의 정책을 견결히 수호하고 당의 정

책을 옳게 집행할 줄 알며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옳지 못 한 것과는 항상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며 로동 계급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당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언제나 강하게 투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로동 계급의 립장은 계급적 원쑤에 대한 증오와 비타협적 투쟁 정신, 자기 계급과 자기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서 표현된다.

로동 계급은 오직 자본가, 지주 계급을 비롯한 일체 반동 세력과의 치렬한 계급 투쟁을 통하여 원쑤를 철저히 타승함으로써만 자기 계급과 피압박, 피착취 대중을 착취와 억압의 멍에에서 종국적으로 해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의 혁명 전사는 원쑤에 대하여 그 어떠한 환상도 가지지 않으며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견지하며 원쑤의 어떠한 책동에도 동요 없이 그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한다.

계급 투쟁은 정치 경제적 령역에서뿐만 아니라 사상 전선에서도 치렬히 전개된다. 원쑤들은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발악한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각종 부르죠아 사상과 함께 《미국식 생활 양식》, 양풍, 쟈즈 등 온갖 퇴폐적이고 부화 타락한 부르죠아 생활 양식과 말세기적 풍조를 침습시켜 근로 인민들과 특히 청년들의 건전한 사상 도덕 생활을 파괴하려고 날뛰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에 아부하면서 온갖 반맑스주의적, 기회주의적 사상을 류포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혁명 전사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계급적 립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부르죠아 사상과 생활 인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비타협적이여야 한다.

계급적 원쑤에 대한 증오와 비타협성은 자기 계급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자기 계급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함이 없이, 그의 리익을 옹호 고수함이 없이, 원쑤를 증오하고 그를 반대하여 투쟁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참된 로동 계급의 혁명 전사는 자기 인민과 혁명 동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서로 협조하고 방조하며 그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알며 혁명 동지를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고상한 혁명적 동지애와 사회주의적 인도주의 정신을 발휘한다.

혁명 전사의 계급적 립장은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에서도 표현된다. 로동 계급은 사상 의지의 통일에 기초한 강철 같은 규률이 없이는 결코 발톱까지 무장한 부르죠아지를 타승할 수 없으며 혁명에서 승리할 수 없다. 때문에 로동 계급은 혁명적 규률을 자기의 생명으로 알고 규률에 무조건 복종하며 혁명 규률을 약화시키는 온갖 자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다음으로 로동 계급의 립장은 조선 혁명은 반드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힘에 의하여 수행해야 하며 또 수행할 수 있다는 확고한 주체성에서 표현된다.

우리 당의 주체 사상—이것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조선 혁명에 대하여 책임지며 우리의 주체적 혁명 력량에 의하여 끝까지 조선 혁명을 수행해나가는 확고한 립장이며 태도이다. 원래 혁명을 남에게 의존해서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로동 계급은 자기 당의 령도 하에 자기 나라 혁명을 자기의 힘으로 수행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혁명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혁명 전사는 이와 같은 확고한 주체 사상을 견지하고 온갖 비맑스주의적 교조주의 사상을 배격하며 나라의 독립과 자주적 발전을 위하여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써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며 어떠한 외적의 침해로부터도 자기의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자위력을 갖추기 위하여 헌신 투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선진적 로동 계급의 립장은 일상 사업과 생활, 언행 등에서의 고상한 공산주의적 품성으로 표현된다.

혁명 전사는 로동을 가장 고상하고 영예로운 일로 생각하며 보수를 타산하지 않고 로동에서 높은 자각성과 창조적 열성을 발휘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동을 천시하고 경시하는 착취 계급의 사상 잔재를 증오하며 남의 로력의 대'가로 살려는 건달'군을 허용하지 않는다.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는 로동의 고귀한 산물인 국가 사회 공동 재산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련결되여 있다. 혁명 전사는 나라와 집단의 소유를 소중히 하며 모든 것을 극력 절약하고 예비를 찾아 내여 국가 재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며 그를 탐오 랑비하는 현상과 견결히 투쟁한다.

로동 계급의 립장이 확고한 사람은 또한 일상 생활에서 검박하고 겸손하며 례절이 바르고 언행이 일치하다. 혁명 전사에게 있어서 사치와 부화, 안일과 해이는 용허될 수 없다.

우리는 항일 유격 대원들의 투쟁과 생활에서 로동 계급의 립장을 고수한 생동한 모범을 볼 수 있다.

항일 빨찌산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귀중한 것,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웠으며 개인의 리익을 혁명의 리익에 복종시키고 혁명의 리익을 목숨 바쳐 옹호하고 고수하였다. 계급적 원쑤에 대한 증오와 비타협성, 로동 계급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가장 귀중한 품성이다.

《빨찌산들은 원쑤에게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인민들에게는 순한 양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묵묵히 바쳐야 한다.》

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말씀은 항일 빨찌산들의 투쟁과 생활의 지침이였다. 그들은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는 견결한 혁명 정신으로 원쑤와의 판가리 싸움에 나섰으며 어떤 정황 속에서도 동요함이 없이 끝까지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지켰다.

우리는 또한 항일 빨찌산들에게서 혁명적 동지애의 빛나는 모범, 일상 생활에서 근면, 검박하고 소박하며 혁명 대렬의 강철 같은 규률을 자기의 목숨으로 지킨 빛나는 모범을 보고 있다.

실로 항일 빨찌산들은 확고한 계급적 립장을 소유하고 그를 고수한 공산주의 투사의 불멸의 구감으로써 그들의 투쟁과 생활은 공산주의를 배우는 우리 청년들의 고귀한 교과서로 되고 있다.

× ×

우리 청년들이 로동 계급의 혁명적 립장으로 무장하며 그를 확고히 고수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계급 의식을 더욱 높여야 한다.

우리 당 정책을 철저히 체득하고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소유하는 것은 혁명적 계급 의식을 높이는 데서 기본으로 된다.

다음으로 청년들은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하며 바로 그들처럼 로동 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끝까지 견결히 고수하는 혁명 전사로 준비되여야 한다.

정치 조직 생활과 혁명 실천은 투사들을 세련시키고 단련시키는 학교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민청 조직 생활을 강화하여 실천 투쟁 중에서 자기의 공산주의 수양을 부단히 강화하여야 한다.

정 오 표

폐지	단	행수	틀　　　림	옳　　　음
19	좌단	36	인민 생활	이미 생활
19	우단	10	의식에서 많이	의식에서 만이
40	좌단	33	궁전 추용	궁전 무용
41	좌단	11	1930 년대와	1930 년대



그가 총을 잡기까지

조 남 희

고아의 운명

마식령의 생눈'길로 달구지 한 대가 삐걱거리며 쉬임 없이 가고 있었다. 그 달구지 우에는 대여섯 살 밖에 안 되는 한 어린애가 오돌오돌 떨며 앉아 있었다.

어린것은 웃통에다 헌누더기를 걸쳤고 아래'도리는 아무 것도 입지 못 했다. 맵짠 바람이 쌩하고 불어 올 때마다 어린것은 고사리 같은 손을 입에 가져다 대고 《호호》 분다.

《이 놈애야, 옛다, 이거나 뒤집어 써.》

달구지 뒤에 따라 가든 뚱뚱보 지주 놈이 어린애의 머리 우에 길'가에서 주은 궤진 가마니를 집어 던졌다. 어린것은 얼른 그 가마니 밑으로 기여 든다.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의 고아 한 천만의 운명이였다.

원래 그의 아버지는 원산 부두 로동자로 일했었다. 아버지는 꼭두새벽부터 왜놈 감독의 채찍 밑에서 모진 고역에 시달리면서도 아침 저녁 먹는 것이란 얼굴 비치는 멀건 죽물이였다.

게다가 어머니는 중병으로 앓아 누웠다. 어느날 어머니는 자기 머리 맡에서 배 고파 울고 있는 어린것을 보다 못해 몸을 일으키며 비칠거리며 밖으로 나섰다. 풀뿌리라도 뜯어 올 예정이였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기진하여 풀밭 우에 쓰러졌었다.

《엄마! 엄마!》

어린것은 애타게 부르짖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 했다. 그는 끝내 원한 많은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만 것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버지마저 순사 놈에게 붙잡혀 가고 말았다. 민족적 멸시와 천대에 대한 반감, 로동자들의 등을 쳐먹는 회사 측의 야수적 행동에 대한 항거—이것이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죄》였다. 그 후 아버지는 종무소식이였다.

이리하여 고아로 된 천만은 지금 문천군 산백동 렬북충이 지주—윤 정필의 집에 소위 《양자》로 끌리워 가고 있는 것이다.

지주 윤 정필—그는 온 마을의 땅을 혼자서 독차지하고 있는 놈이였다. 벼룩이 간도 빼 먹는다는 린색하기 짝이 없는 이 놈은 고률의 소작료는 물론 비료대, 물세, 외객 접대비 등 갖은 구실을 다 붙여 농민들을 착취하였고 자기 집 논밭의 모내기와 김, 마당질은 물론 도랑치기, 나무 해 오기 등 갖은 방법으로 소작인들을 부려 먹었다. 그러다가도 조금만 제 비위에 맞지 않으면 사정 없이 땅을 떼고 쫓아 버리군 하였다.

심지어 이 놈은 농민들에게 땅을 적은 분량씩 나누어 주어야 농민들이 그 좁은 땅에서 더 많은 소출을 내려고 기를 쓰며 농사한다는 것까지 타산하고 이랑을 세여서 나누어 준 놈이였다.

이렇게 악착하게 농민들의 피땀을 착취하여서는 부화한 생활을 일삼고 있었으니 그에게는 본처 외에 여우 같은 첩년들도 셋이나 있었다.

…드디여 달구지는 지주집에 당도하였다.

지주는 어린것을 외양'간 북데기 속에 가두었다.

《이게 이제부터 네 집이다.》

그 안에는 큰 개와 강아지들이 있었고 덕대 우에는 닭이 우굴거렸다.

《얘 밥 먹어라. 개밥만 빼앗았다간 주리를 틀어 놓겠다.》

여우 같이 생긴 지주의 녀편네가 조밥덩이를 던져 준다. 이튿날부터 어린 머슴은 거의 자기 몸체만한 물통을 들고 소구유에 물을 주어야 했으며 장작을 안아 들이고 그 많은 아궁이들에 불을 지펴야 했고 물을 길어 날라야 했다. 그러면서도 걸핏하면 매질이였다.

생각해 보라! 나이 여섯 살, 오늘 우리 제도 하에서라면 한창 유치원 뜨락에서 노래도 부르고 나비 같이 춤도 추며 재롱을 피울 시절이 아닌가! 그런데 그 때 여섯 살의 꽃봉오리인 한 천만은 벌써 머슴이 되였던 것이다.

어느덧 그는 여덟 살이 되였다.

그러나 이 때 그의 머리 우에 더 무서운 마수가 들씌워질 줄이야 어린 그가 어찌 알았으랴!

어느 깊은 밤 지주와 그의 맏첩년이 마주 앉았다. 지주 녀편네의 종알거리는 소리…

《그 놈이 차츰 철이 들면 달아 날 수 있어요. 눈알을 굴리는 꼴이 심상치 않어요.》

《허—그럴 수도 있소. 어떻게 할가? 종아리를 분질러 놓으면 부려 먹을 수도 없구.》

지주 녀편네는 살무사 눈처럼 울롱한 눈을 깜박거리며 한참 동안 무슨 생각에 골돌하더니 갑자기 엉뚱한 말까지 들었다 놓는다.

《골통을 때려서 정신 없는 반머저리로 만들어 놓자요. 그러면 얼마든지 부려 먹을 수 있어요.》

《으흠 그렇지 그래! 그러면 종신 부려 먹으니 좋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부리니 좋아… 거 과연 좋은 궁리를 했소.》

이튿날 이른 새벽 계집년은 외'양간 문을 안으로 단단히 걸며 바깥 동정을 살핀다. 지주 놈은 커다란 참나무 몽둥이를 하나 얻어 들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알리 없는 어린것은 태연하게 짚 북데기 속에서 자기가 신을 짚신을 삼고 있었다.

지주 놈은 눈에 퍼런 불꽃을 날리며 소년의 등뒤로 다가 간다. 흡사 그것은 피를 즐기는 승냥이 몰골 그 대로이다.

《아아아—》

소년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엎으러진다. 정신을 잃었다.

《영 죽지나 않겠는지?》

《걱 념려 마오. 적당하게 때렸으니까? 호호호…》

《호호호》

피를 랑자하게 흘리고 쓰러져 있는 소년을 앞에 두고 키드득거리는 승냥이들…

그러나 놈들이 제아무리 악착한 짓을 다 해도 결코 소년의 맑은 정신을 빼앗을 수는 없었으며 죽일 수도 없었다. 허지만 그 후 소년의 몸은 차츰 쇠약해졌다. 일이 이렇게 되자 교활한 지주 놈은 얼마 간의 돈을 받고 그 역시 지주이며 자기의 처남인 한 창욱에게 팔아 먹고 말았다.

지주의 《자비심》

세상에 지주 놈치고 어느 놈이 다르랴만 지주 한 창욱 역시 윤 정필이 못지 않은 악독한 놈이였다. 게다가 이 놈은 왜놈들의 《산림 간수》까지 얻어 하였다. 왜놈의 세력을 등에 업고 농민들을 더 혹독하게 착취하기 위하여서였다.

그 당시 일제는 조선에서의 식민지적 략탈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희들의 믿음직

한 지주로서 지주 놈들을 백방으로 비호하였고 그들에게 이러저러한 특권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한 창욱은 날마다 서슬이 뎅뎅해서 사람들을 매렸고 혹사하였다. 산에서 검불 하나도 얼씬 못 하게 하였다. 한 천만 역시 날마다 욕설과 매질 속에 해가 뜨고 졌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도 오래 있지 못했다. 한 창욱이 자기의 왜놈 상전의 지시에 따라 타 곳 《산림 보호구》로 《영전》하게 되자 이 번엔 자기 동생인 한 창언 (그 역시 악질 지주였다.)에게 넘겨 주었다.

이리하여 열 세 살 난 소년은 오늘은 이리 팔리우고 래일은 저리 팔리우면서 세 주인을 섬겼다.

한 창언이란 놈은 악착하기 그지없는 데다가 교활하기 또한 그지없었다.

어느 여름날에 있은 일이다.

천만이가 김을 매고 늦게야 소꼴을 베여 지고 돌아 왔는데 지주 놈은 큰 선심이나 쓰듯 말했다.

《얘. 내 방에 좀 가자. 긴한 이야기가 있다.》

어저께까지 걸핏하면 욕질이요. 매질이던 지주 놈이 왜 이렇게 좋게 구는지 알 수 없었다. 지주의 방엔 불여우 같은 지주 녀편네까지 앉아 있었다.

《얘, 이젠 너도 열 세 살이다. 장가를 들어야겠다.》

《색씨도 마련됐다. 착하고 곱게 생겼다.》

년놈들이 쑥덕대는 수작…

천만은 어린 소견에도 너무나 어이 없어 아무 대꾸도 안 했다.

과연 그로부터 며칠 후 열 살도 되나 마나한 처녀애가 끌려 왔다. 한 창언은 어느 소작인이 《보국대》로 끌려 간새 빚대신 그의 딸을 끌어 왔던 것이다.

년놈들은 열 세 살짜리 사내애와 열 살짜리 처녀애를 나란히 앉혀 놓고 타일렀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남이 아니다. 이 은혜를 생각해서도 일에서 꾀를 부리지 말고 바지런히 일해야 돼. 알았냐? 앙》

그러나 처녀애는 온 날부터 제집과 부모들이 그리워 울기만 했다. 그러면 또 지주 녀편네는 소녀의 조그마한 머리 꽁다리를 갈퀴 손으로 움켜 쥐고 매질이였다.

《집안이 망하게 눈물은 웬 눈물이야! 어서 나가 빨래랑 하고 물이랑 긷지 못 할가?》

소녀는 모진 매 속에 날마다 파리해 갔다.

그러면서도 그 년놈들은 동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다.

《남의 재길 양하기란 정말 쉽지 않쉐다. 고이 키워 주고 시집 장가 보내 줘야 하구.》

마치 큰 자비심이나 쓴다는 심정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무런 자비심도 아니다.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안팎 노예를 얻으려는 교활한 수작에 불과한 것이다.

다행히 그 후 소녀의 아버지가 돌아 와서 지주 놈에게 달려 들어 딸을 찾아 가지고 야밤 삼경에 솔가 도주한 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 지었다. 그 후에도 천만은 이 《비극》을 오래도록 잊지 못 했다.

열 네댓 살 잡히면서 천만은 계속 돈 있는 집들의 삯보국대로 끌려 다녔다. 지주 놈은 천만을 돈 있는 집 삯보국대로 내보내고 그 삯전도 제 배'속에 쓸어 넣었고 또 천만이가 그 죽음의 일터에서 얼마간 벌어 온 돈도 빼앗아 냄으로써 안팎 벌이를 하였던 것이다.

(내가 왜 제 육신을 놀려 번 것을 남을 줘야 하는가? 나는 한뉘 머슴살이를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차츰 천만의 머리에 떠오르게 되였다.

어느 깊은 밤 소년은 끝내 그 죽음의 마굴에서 뛰쳐 나고 말았다. 그리고는 10 여 년 전 자기가 달구지에 실려 생눈'길을 헤치고 왔던 마식령을 향하여 걷고 또 걸었다.

《12 번》

세상은 넓어도 어린 소년이 몸담을 곳은 없었다. 하늘을 집을 삼고 떠돌던 소년은 내중에 원산 바닥에서 헤매게 되였다. 그는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였다. 그는 어느덧 20 가까운 청년이 되였다.

무더운 어느 여름날이였다. 원산 《마루 보시》 운송부에서 온 종일 비지땀을 흘리며 고역에 시달리고 있던 그에게 순사 놈들이 달려 왔다.

《이 놈아! 젊은 놈이 뭘 하고 있느냐! 오늘부터 징용에 나가야 한다.》

《징용이라니요?》

어리둥절한 그를 놈들은 화물차 바곤에 쓸어 넣었다.

그가 당진한 곳은 흥남 비료 공장이였다. 놈들은 이 징용에 끌려 온 사람들에게 번호를 붙였다. 천만의 등에는 대문짝만한 《12》라는 번호가 찍혔다.

놈들이 《12번》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해야 했다. 이름 석 자도 가질 수 없었던 것— 이것이 과거 우리 로동자들의 고달픈 력사의 한 페지였던 것이다.

매일 먹는 것이란 아침 저녁 받는 깡보리 밥덩이였다. 하루 종일 무거운 비료 가마니를 등'짐으로 나르고 나면 입에서는 저'불내가 확확 나고 밤에는 신음 소리를 지르면서 앓았다.

하루는 왜놈 감독이 비료 가마니를 등에 지



고 비칠거리며 걸어 가는 그에게 《빨랑빨랑 뛰란 말이다》 하며 몽둥이로 다리를 갈겼다. 그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감독 놈은 그에게 다가가 《왜 밥이나 처먹고 꾀나 부리는가》 하고 다시 몽둥이를 쳐든다. 청년은 벌떡 일어 났다. 그리고는 겁에 질린 왜놈을 쏘아보다가 우지끈 받아 넘겼다. 쌓이고 쌓인 분노가 드디여 폭발한 것이다.

그 후 공장 내에는 《12번이 도망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청년은 어느 시궁창 밑에서 8.15 해방을 맞이했던 것이다.

× ×

이것이 바로 한 천만 동무가 걸어 온 피눈물나는 과거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한 청년의 운명만이겠는가?

당시 우리의 부모들과 청년들이 걸어 온 한결같은 수난의 길이다.

한 천만의 청춘은 해방 후에야 꽃폈다. 그는 무거운 노예의 쇠사슬을 풀어 던지고 당당한 나라의 주인이 되였고 자유로운 몸이 되였다. 그는 당과 수령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민청원으로, 로동당원으로 성장하였고 누가 원쑤이며 누가 우리 편인가를 똑똑하게 식별하게 되였다.

그는 이 모든 자유와 행복을 더 없이 소중히 여기게 되였다.

(두 번 다시 그렇게 살 수 없다. 혁명 선렬들의 붉은 피로 이룩된 혁명적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나의 청춘도, 심장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그는 이렇게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한 천만 동무는 총을 잡게 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제 승냥이들이 조국 강토에 기여 들자 그는 수 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원쑤 놈들을 족치고 또 족쳤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치는 전투적 위훈을 세웠다.

그는 인민군 지휘관으로 조국 보위의 초소에 굳건히 서 있다.



굴진소대 앞으로!

신창 지구 종합 탄광 송남 광 리 정삼 천리마 청년 소대원들은 월 200 메터 이상의 고속도 굴진을 보장함으로써 1호 연선 개발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고속도 굴진

자정이 지난지도 퍽 오랬다.

그러나 리 정삼 천리마 청년 소대원들이 거처하고 있는 합숙이며 사택들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흘러 나오고 있다.

그들은 이 밤도 한결같이 1 호 연선 개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150만 톤이나 되는 막대한 석탄 매장량을 가지는 1 호 연선의 개발은 금년도 탄광적인 석탄 생산 계획 수행을 좌우하는 결정적 고리였다. 이를 개발하려면 1.675 메터나 되는 방대한 굴진을 해야 하는데 종전과 같은 월 40~50 메터의 굴진 속도로써는 3 년이라는 시일이 걸리게 된다. 그러나 현재 탄광 실정으로는 몇 달 어간에 이 과업을 완수하고 4.4 분기부터는 직접 석탄 생산에 들어 가야 할 사정인 것이다. 그러니 월 200~300 메터의 전례 없는 고속도 굴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가?

바로 이와 같은 생각들로 하여 그들은 오늘 밤도 모대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잠간 그들이 거처하고 있는 곳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2 분대장 신 한철 동무는 자기 집 책상에 마주 앉아 고속도 굴진에서 갱내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붉은 기대 쟁취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방도들을 생각하고 있으며 어느한 불'빛 밝은 합숙 방에서는 최원기 동무와 전 봉렬 동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양개》의 분리식 이동 방법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다. 즉 그것은 종전에 7~8 명이 세 시간이나 걸리던 일을 《양개》의 각 부분을 분해하여 이동함으로써 3 명이서 30 분이면 수월히 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였다.

바로 같은 시각에 박 태현 동무는 자기 집에서 붉은 수첩을 펼쳐 들고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넣고 있었다.

—고속도 굴진! 이 다섯 자의 글 속에는 나의 붉은 마음과 민청원의 영예가 고동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기술 기능 수준을 더욱 높이리라!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리 정삼 소대장 동무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흥분되여 있다.

그는 얼마 전 새 작업 방법—다막장 굴진 방법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즉 세네개 막장을 동시에 굴진해 감으로써 착암공, 동발공, 버럭 채취공들이 막장별로 돌아 가면서 순환식으로 일할 수 있는 작업 방법이다. 이것은 종전 같이 매 작업 공정이 바뀌면서 부득불 생기는 시간상 공간을 없애고 작업을 전문화하게 함으로써 능률을 3 배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어찌 그들 뿐이랴! 광장도, 당 위원장도, 자재부원들도 이 밤 고속도 굴진을 생각하며 잠들지 못 한다.

그로부터 얼마 후 리 정삼 천리마 청년 소대원들은 월 200~300 메터의 전례없는 고속도 굴진의 대담한 발기자로 나섰다.

난관을 뚫고

고속도 굴진을 시작하던 날 민청원들의 기세는 태산도 단숨에 허물듯 하였다. 한 사람같이 지혜를 합쳐 연구된 여러 가지 새로운 대책들은 처음부터 은을 내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교대 당 한 번 날지 말지 하던 발파 소리가 세네 번씩 지심을 진동시켰고 혁신과 미담을 담은 속보는 하루에도 '20 여 회나 새로 나붙군 하였다.

이런 벅찬 투쟁 가운데서 일어 나는 기적적인 이야기인들 그 얼마나 많으랴! 버럭 채취공으로 된지 불과 몇 달 밖에 안 되는 전 봉렬 동무는 고속도 굴진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일어날수록 마음은 더욱 안달아 났다. 경험이 오랜 기능공들은 짬만 나면 착암공들의 일도 도와 주고 동발공도 협조해 주면서 나날이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 기술이 부족한 자기만이 유독 뒤떨어진 것만 같아 부끄러웠다.

(이러다가는 영영 락후자가 되고 말겠군.)

더우기 다기능 소유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치차처럼 맞물며 서로 돕고 협조해야 할 고속도 굴진이라는 이 벅찬 생활 자체가 요구하는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그의 눈앞에는 제대되던날 《생산에서도 꼭 초병의 영예를 떨쳐 주오.》 하고 부탁하던 전우들의 얼굴이 삼삼히 떠올랐다.

(그렇다! 나는 혁신자가 되여야 한다. 어떤 일이 있던지 다기능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심한 그는 우선 착암 기술부터 배워 나가기 위하여 제일 기능이 높은 착암공 리 순화 동무의 작업 동작을 유심히 살펴 보기도 하고 그에게 착암기 다루는 법을 깐깐하게 캐여 묻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순화 동무의 착암기를 빼앗아 들고 말했다.

《착암기는 내가 쥐고 있을 테니 옆에 서서 조절만 해 주소, 그러면 착암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제사 순화 동무는 그의 의도를 알아 차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 배우고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오랜 시일이 걸려야 소유할 수 있는 착암기를 단 보름 동안에 능숙하게 다루게 되였다. 이것은 곧 신입 로동자들 속에서 다기능 소유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동기로 되여 그들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착암, 동발, 운반 등의 다기능을 소유하게 되였고 그것은 또한 고속도 굴진에서 큰 역할을 놀게 되였다.

일에서 성수가 날수록 민청원들 속에서는 더 빨리 나가려는 열의가 한층 더 세차게 타번졌다. 그러던 차에 그들 앞에는 뜻하지 않는 난관이 제기되였다.

고속도 굴진이 한창 고조되였을 때 경도가 8도나 되는 쇠'덩이 같은 암석 층이 나타났다. 굴진 속도는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극히 부분적인 동무들 중에서는 다소 실망하는 동무들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정삼은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어느 날 그는 동무들을 모아 놓고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내 옛말을 하나 하지. 난 잔뼈가 굵기전인 열 네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탄광 일을 하였소. 그 때 탄광이야 그야말로 지옥이

였지, 무거운 탄짐을 지고 비좁은 굴'간을 네발 걸음으로 기여 나오면 무르팍에서 피가 터지군 했소. 놈들은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았소. 아무런 안전 대책도 없는 곳에 사람을 쓸어 넣고 일을 시키다가 잘못되면 헌가마니에 둘둘 말아 버럭에 묻군 하였소.

나의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 가셨소. 나는 나의 아버지를 두 팔로 안고 갱도에서 나왔소. 정말 온 심장이 천쪼각이 나는것 같더군,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월이요. 작업 과정에 어디 한곳 상처 날세라 자그마한 돌 하나 떨어질세라 깐깐히 보살펴 주는 당의 뜨거운 배려 밑에서 우리는 살며'일하고 있소! 그런 것을 생각해서도 우리는 일을 더 잘 합시다. 자 그럼 우리 굴진 소대 동무들! 앞으로 나아갑시다.》 동무들은 모두 자리에서 움쭉움쭉 일어 났다.

《지주와 자본가 놈들을 쓸어 눕히는 기세로 1 호 연선을 관통해 나아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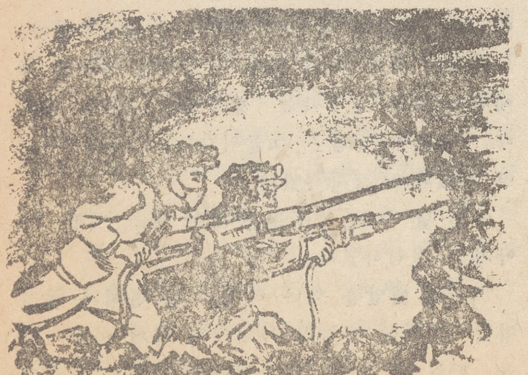
이 날 그들은 이와 같은 결심 밑에 일하였으며 종전에 비하여 110 %의 능률을 내였다.

그리하여 그렇듯 그들 앞에 난관으로 제기되였던 70 메터의 암석 층도 그들 앞에서 끝내 나 머리를 숙으리고 말았다.

한 덩어리가 되여…

각 작업 공정이 치차처럼 맞물리우고 돌아가야 하는 고속도 굴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전체 소대원들이 하나의 의지로 굳게 단합되는 것이였다.

리 정삼 천리마 청년 소대원들은 어려운 파



업이 제기 될수록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하나로 힘을 합쳐 나갔다.

한 번은 교대가 끝난 후 2 분대장 신 한철 동무가 김 순제 동무를 찾았으나 아무 데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나 하고 막장으로 들어 갔더니 거기에는 김 순제 동무만 아니라 최 원기, 박 태현 동무들을 비롯한 많은 민청원들이 다음 교대 동무들을 도와 주느라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 않는가!

알고 보니 그들은 벌써 닷새 동안이나 분대장 몰래 계속 식사를 막장에 날라다 하면서 암석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피곤한 기색 한 번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분대장은 그만 가슴이 차 오름을 가까스로 참으면서 순제 동무에게 조용히 다가섰다.

《그런데 나는 왜 빼돌렸소.》

순제 동무는 말 없이 고개만 숙이였다.

그들은 자기 몸보다 대원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분대장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지라 분대장 앞에서는 집으로 돌아 가는 척 하다가 작업장에 되돌아 서군 하였던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소대원들에게만 한하랴!

박 태현 동무의 안해는 고속도 굴진이 시작된 날부터 자기로써 도와 줄 일은 없겠는가 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발파의 충진물로 사용하는 점토를 십리가 넘는 재동에 가서 날라다 쓴다는 말을 듣자 그는 그 날부터 그 십리 길을 왕복하면서 점토를 막장에까지 이어 날랐고 자기 손으로 충진물을 곱게 빚어 놓고는 돌아 오군 하였다.

소대원들은 아무리 말려도 그의 열성을 막을 도리는 없었다.

이렇듯 집단이 한 덩어리가 되고 지어는 가족들까지 하나로 단합되여 전진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인들 못 하겠는가?

기적은 련속 꼬리를 물고 일어 나 고속도 굴진을 시작한 첫 달에 벌써 206 메터의 굴진을 보장했으며 3월에는 다시 353 메터나 굴진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 1 호 연선의 개발을 예견된 시일보다 4 개월이나 앞당겨 5월 말까지 완공할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본사 기자 하 만춘

독서와 론쟁

백 선 욱

독서와 론쟁을 옳게 결합시키는 문제는 자체 학습을 훌륭히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의 혁명 선배들의 학습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독서를 강화하고 론쟁의 분위기를 잘 조성하여 학습을 한다면 빠른 기간 내에 폭 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혁명 투쟁에 더욱 훌륭히 이바지할 수 있다.

× ×

학습에는 독서, 발췌, 토론, 청강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학습 방법은 독서이다. 우리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원래 독서로부터 시작된다. 서적들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당 정책과 맑스-레닌주의 리론, 과학 기술 지식과 문화 예술 리론 등 선진 인류가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여 있다.

그러므로 독서를 강화하면 사업과 생활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들을 자체로 능히 체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치 리론 수준과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다.

때문에 독서는 자체 학습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 수단으로 된다. 우리들은 물론 강의나 강연을 통해서도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들은 자습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방조 수단으로서 학습에서 기본 수단으로는 될 수 없다. 강의나 강연을 통하여 얻은 지식에 근거하여 반드시 해당한 서적들을 체계적으로 읽으면서 연구함으로써 지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넓힐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서는 누구든지 자기 능력과 요구에 맞게 임의의 문제들을 제때에 학습하여 자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청년들은 제정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말고 모든 토막 시간까지도 의식적으로 리용하여 독서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독서 하나만으로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독서는 혼자서하는 학습 방법이다. 그런데 각자는 자기의 준비 정도와 사고력의 정도에 따라 문제를 리해하는 데서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리해 정도를 검증하고 모를 문제를 해명하고 그것을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정확히 체득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론쟁은 이 문제 해결의 중요 방도로 된다.

그러므로 독서와 론쟁을 옳게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학습에서 론쟁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토론과 론쟁은 독서와 강의, 학습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공고히 하고 그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게 하며 그리하여 확고한 주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김 일성 동지는 학습에서 론쟁의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

였다.

《… 론쟁을 통해서 우리는 당 정책을 리론적으로 깊이 파악하게 되며 자기 사업에서 교조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공산주의 운동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론쟁이 아주 맹렬하였습니다. 우리는 론쟁을 거쳐서 자기의 확고한 주견을 세웠던 것입니다.》
(재 환경에 적응하게 군당 단체의 사업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 론쟁 과정에 집체적인 지혜가 발동되여 호상 견해들을 보충하고 시정하여 정확한 결론을 얻게 된다. 그리하여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모호하든 문제들이 명확히 해결되며 그릇되게 알고 있던 것은 정확히 리해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심오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론쟁은 탐구욕과 사고력을 적극 발전시켜 준다. 론쟁을 통하여 해당한 문제에 대한 자기의 리해 정도와 사고하는 립장과 방법을 검증하게 되며 배우게 된다. 그리하여 론쟁에서 얻은 교훈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사고력과 판단 능력을 부단히 발전시키게 된다.
토론과 론쟁 과정에 과학 기술 발전의 훌륭한 성과들이 발명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의 창조적 사고력이 적극 발동되기 때문이다. 사고력이 제고되면 문제의 중심을 옳게 파악하게 되고 난해했던 문제들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된다.

× ×

론쟁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흔히 론쟁은 직장과 학교에서, 합숙과 기숙사에서, 길'가에서 우연적 계기에 의하여 벌어지는 수가 많다. 이러한 론쟁적 분위기는 학습 기풍을 세우는 데 좋은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이런 론쟁은 참가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준비가 없음으로 하여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 하거나 단편적이며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래 동안 론쟁하게 되거나 실생활과 거리가 먼 문제를 가지고 《론쟁을 위한 론쟁》으로 되기 쉽다.

그러므로 론쟁은 일정한 학습 계획에 따라 준비 있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론쟁은 주로 민청 학습회, 각종 과학 기술 학습 토론회 등을 중심으로 일정한 계획 밑에 준비 있게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 준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다. 하나는 지도자의 경우인데 지도자는 사전에 문제를 옳게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론쟁에 목적 의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론쟁에 대한 문제의 설정은 학습 내용과 성격에 따라 실로 각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 설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우선 청년들의 생활과 사업, 당 정책 관철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에 첫 주목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학습이 실천과 밀접히 결부되게 하는데 론쟁의 중심 목적이 설정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론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준비이다.
모든 사람들이 론쟁의 목적을 알고 해당 문제에 대하여 자기가 발표할 수 있는 일정한 리해를 가지고 목적 의식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난 기간 독서와 강의, 강연을 통하여 얻은 지식에서 아직 희미한 문제와 새롭게 리해해야 할 문제 등을 론쟁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

론쟁을 옳게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론쟁의 분위기를 옳게 조성하며 모두가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선차적으로 제기 된다.

론쟁 과정에는 각이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부정확한 리해와 착오, 의견 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때 동지적인 방조를 통하여 정확한 결론을 얻을 대신에 함부로《감투》를 씌우거나 부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자기 고집만을 부리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론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지하고 허심한 태도이다. 남의 의견에 심중히 대하며 사고력을 발동하여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고 자기의 주장을 다시금 검토하는 등 옳은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론쟁 과정에서 남의 의견에 허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인신 공격이나, 근거 없는 비방이 가해지면 론쟁의 분위기가 약화되고 아무런 성과도 거둘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허심하게 배우고 배워 주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론쟁에 참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론쟁에서 중요한 것은 중심 문제를 옳게 설정하고 그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는 방향으로 론쟁을 끌고 나가는데 참가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론쟁의 목적은 이미 학습한 문제에 기초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여 확고한 주견을 수립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단편적인 문구나 어휘등 부차적이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토론하며 실천적인 결론을 얻어야 한다.

론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준비 정도와 리해 정도가 각이한 것만큼 문제를 제기하고 리해하는 각도도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제기된 의견들은 반드시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론쟁은 반드시 자기의 실지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는 계기로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을 떠난 론쟁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롭다. 론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혁명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해결함으로써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혁명에 더잘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

론쟁을 통하여 공고화되고 새롭게 얻은 지식은 산 지식으로 자기의 뼈와 살로 되여야 하며 자신의 실천 활동을 거쳐 더욱 심화되여야 한다.

끝으로 론쟁에서 훌륭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옳게 설정되고 그의 준비가 잘 되여야 한다.

아무런 지도자가 없이 론쟁이 벌어진다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기본 방향에서 리탈되여 명확한 결론을 얻을 수 없다.

때문에 토론 문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연구하고 더 많이 리해하고 있는 준비된 사람을 지도자로 인입하여야 한다. 그래야 론쟁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일치한 견해를 가지고 총화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독서하고 론쟁의 분위기로 학습 생활이 들끓게 함으로써 자기의 지식과 시야를 넓히고 혁명 실천에서 옳게 구현 해야 한다.

전체 청년들은 학습에서 독서와 론쟁의 두 고리를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감으로써 혁명의 무기와 수단을 더욱 빨리, 튼튼하게 소유하여야 한다.



설음 많은 이국살이에 시달리던 그는 조국의 품에 돌아 온 후 어떻게 성장 발전 했는가?

그는 태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당과 수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어떻게 간고 분투했는가?

과학원 공학 연구소 채탄 연구실의 젊은 연구사 리 룡암 동무에 대한 이야기

영원히 잊지 못할 영광의 날

1959년 12월 29일.

이 날은 리 룡암 동무의 생활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다.

이 날 제 1 선으로 그리운 조국의 품에 안긴 그의 가정에 경애하는 수상 동지께서 찾아 오시였다. 그 이께서는 친어버이와 같이 일일히 그들의 살림 형편을 보시고 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직장은 어데인가고 물으시고 그들로부터 남편은 김책 공대에 편입되고 안해는 평양 의대에 편입됐다는 대답을 들으시고 매우 만족해 하시였다.

이 날 그 이께서는 룡암 동무에게 남보다 공부를 잘 해서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붉은 기사》라고 하는가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그 이께서는 룡암 동무가 미처 대답을 못 하자

《자기의 모든 기술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바치는 사람을 가리켜서〈붉은 기사〉라고 하오.》라고 하시면서 그들 젊은 부부를 향하여 가정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려면 앞으로 난관도 있을 수 있으나《난관을 극복해서 꼭 훌륭한 약제사가 되고〈붉은 기사〉가 되여야 하오.》라고 가르치시였다.

수상 동지께서 다녀 가신 날 밤 룡암 동무는 너무도 행복에 겨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억울하게 흘러 간 지난 시절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경상북도 영천군의 한 두메 산'골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여나 오뉴월 긴긴 날에도 굶주리며 자라던 일, 학교라고 입학했으나 입학금을 물지 못 하여 쫓겨나던 일,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후에는 더욱 생활에 쪼들리여 병든 부모를 고향땅에 남겨 두고 파도 사나운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가던 일, 동경에서 단간 세'방도 얻을 길 없이 이 집 저 집 굴러 다니던 눈물겨운 고학의 나날, 그 모든 것은 얼마나 쓰라린 생활이였던가!

그런데 은혜로운 조국은 오늘 자기들의 생활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었고 광활한 배움의 길까지 열어 주지 않았던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룡암 동무의 가슴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과 수령의 은혜에 보답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로 하여 세차게 출렁거렸다.

그는 다시 한 번 수상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보며 마음의 맹세를 다졌다.

《수상님 저는 어떤 일이 있드라도 당신의 말씀 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당신의 깊은 배려와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룡암 동무는 자기가 수상님의 말씀 대로 당의《붉은 기사》로 되는 길은 무엇보다 학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학습—이것이야말로 나의 생활에서 첫째 가는 임무이다. 더우기 나는 오래 동안 남조선과 일본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 온 사람이다. 때문에 나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튼튼한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과 계급적 립장으로 무장시키는 정치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가 대학 시절에 있어서나 졸업 후 직장에 진출한 이후이거나를 막론하고 시종 일관하게 견지한 방침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뚜렷한 목표를 내세웠다.

첫째,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을 맑스-레닌주의 고전들과 결부시켜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한 학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둘째, 과학 기술 부문과 광업 부문에 주신 수상 동지의 교시와 당 정책들을 발췌하고 깊이 학습한다.

세째, 이상과 같은 정치 학습과 밀접히 결부시켜 기술 학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1964년까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지압 측정용《광탄성 실험기》(光彈性實驗器)의 완성에 정력을 기울이며 1965년까지 학사 론문을 완성한다.

그리고는 이에 근거한 세밀한 년도별, 월별, 일별 학습 계획서를 세웠다. 그는 계획이 없는 맹목적인 학습은 과녁 없이 쏘는 화살 같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학습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도 그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였다.

즉 첫째로는 자기의 능력, 학습 시간, 독서하려는 책의 분량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는 면밀한 조사 사업을 선행시켰다.

실례로 그는 자기가 학습할 도서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짬짬히 국립 도서관, 대학 도서관, 과학원 도서관 등에 근 1 개월 간이나 다니면서 자기가 읽으려는 책은 어디에 비치되여 있으며 그 책의 분량은 얼마이며 그 책을 읽으려면 얼마마한 시간이 소요되는가를 타산한 기초 우에서《독서 목록》을 작성하고 계획을 세웠다.

이와 같은 행정은 그의 계획 작성에서 주관적 욕망을 극복하고 과학성을 보장하는 중요고리로 되였다.

둘째로, 그는 계획을 소극적인 방향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방향에서 세웠다.

특히 자기가 선행시켜야 할 정치 학습에서는 량적면에 있어서나 그의 질적면에 있어서 매우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면서 수립하였다.

이상과 같은 뚜렷한 목표와 작전은 그로 하여금 방향을 옳게 잡고 력량을 분산시킴이 없이 과녁을 똑바로 겨누어 화살을 쏘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학습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였다.

시간은 쟁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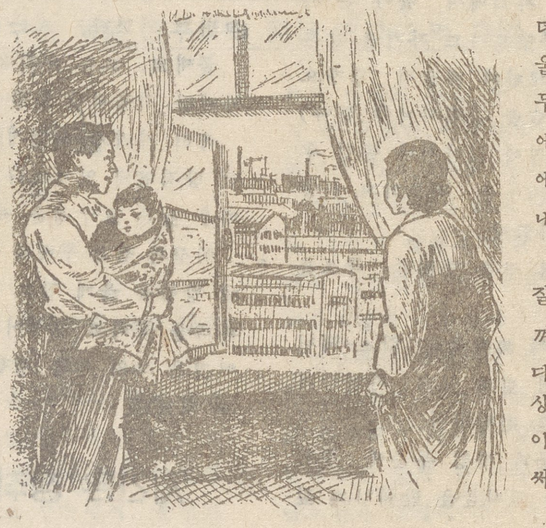
리 룡암 동무는 자기의 일상 생활에서 보다 많은 학습 시간을 짜 내는데 최대한의 관심을 돌렸다. 제아무리 뚜렷한 목표와 면밀하게 작성된 계획도 완강한 실천과 결합 못 될 때 지상 공문으로 되여 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였다.

그는 우선 자기의 일과 생활을 빈틈 없이 짜고 드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가 작성한 시간표에는 아침 저녁 시간과 점심 시간에 공부할 문제만 아니라 뻐스로 직장에 왕복하는 시간이며 하차장에서 직장까지 도보로 가는 시간을 외국어나 공식 암송에 리용한다는 것까지 세밀히 규정되여 있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집 세면대 앞에까지 수학과 력학 공식을 매주 번갈아 붙여 놓고 세면할 때마다 치솔질을 하면서 공부하게끔 되여 있었다.

이와 같은 빈틈 없는 생활 조직은 그로 하여금 학습에서 모든 정력을 담아 붇게 하였다. 그러나 때로 회의나 긴급한 사업 조직으로 생활이 일과 대로 되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 그런 때면 치차처럼 맞물린 학습 계획 실행에 큰 지장을 가져 왔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룡암 동무는 결코 자기의 학습 과제를 후'날로 미루지 않았다.

(비록 순간적으로 잃어지는 시간도 그것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금싸락 같은 시간이다. 차라리 잠을 덜 자드라도 계획했던 학습 과제를 완수하자!)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책상에 마주 앉는 것이였다. 그가 얼마나 자기의 학습 과제에 충실했는가는 다음과 같은 실례로도 잘 알 수 있다.

어느 날 그는 실험 기자재를 얻으려 동평양에 있는 지질 총국에 갔다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밤 11시 경에 집에 돌아 오니 하루 학습 계획이 20%도 실행되나마나 하였다. 얼핏 타산하여도 5~6 시간은 걸려야 그 날 학습 과제를 완수할 것 같았다. 그렇다고 어떻게 자기가 설정한 학습 규률을 위반하랴! 그는 저녁 식사를 필한 후 책을 펼쳐 놓았다.

…그가 얼마나 학습에 열중했던지 머리를 쳐드니 어느덧 창문이 푸름푸름 밝아 갔다. 새벽 5시가 되도록 공부하였던 것이다. 그렇건만 피곤은 간 곳 없고 오히려 마음은 긴장된 전투에서 승리한 병사와도 같은 기쁨으로 출렁이는 것이였다.

그는 학습에서 난관이 제기될 때마다 항상 수상 동지의 가르침을 명심하였다. 그들의 가정에 어린애가 생기고 가정 생활이 더 복잡해지자 어느 날 안해는 자기가 학교를 그만 두겠노라고 말했다. 룡암 동무는 수상 동지의 말씀을 상기하였다. 그 때 수상 동지는 벌써 이와 같은 난관을 예견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던 것이다.

《앞으로 동무네 생활에는 난관이 있을 수 있소. 가정을 이루었으니 앞으로 어린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그만 두든가 학업에 태만해서는 안 되오. 난관을 극복하고 훌륭한 약제사가 되고 <붉은 기사>가 되여야 하오.》

그는 안해에게 말했다.

《당신이 학교를 그만 두려고 하니 우리는 더는 수상님을 만나 뵈올 면목이 없게 되였소. 무슨 낯으로 수상님 앞에 나서겠소. 우선 당신에게 방조를 주지 못한 내가 잘못 하였소.》

그 때 안해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흐느껴 울면서 학교로 향했다. 그 날 밤 그들은 수상님의 초상화 밑에 그이의 말씀을 붉은 천에 써서 걸어 놓았다.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약제사가 되여야 하오.》(김 일성) 1959 년 12월 29일.

그리고는 깊은 밤에 졸다가도 그 글을 쳐다보고는 소스라쳐 잠에서 깨여나 학습을 계속하군 하였다.

이렇게 하여 룡암 동무는 지난 해만 하더라도 김 일성 선집을 비롯한 맑스, 엥겔스, 레닌의 저작, 회상기 등을 60 여 권이나 독파하였고 50 여 권의 기술 서적과 100 여 권의 문예 서적과 정기 간행물들을 읽었다. 이것은 그가 수상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최대한으로 시간을 짜 내여 학습하였기 때문이였다.

《글 뒤지》가 되지 말자

《만약 책을 읽고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결국 책은 책 대로 나는 나 대로 되고 마는 것이니 독서하는 보람을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백 년 전 우리 나라의 대학자 리 률곡 선생이 한 말이나 그에 담긴 진리는 시간의 한계를 넘어 영원히 우리에게 생동하다.

바로 리 룡암 동무 역시 독서에서 단순한 글 뒤지가 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지압 통제에 대한 연구에서 잘 모를 것이 있으면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의논하군 하였다.

지난 해 정초 그는 자기의 연구 제마에 근거한 서적들이며 문서들을 안고 개천 지구 람전 탄광에로 찾아 갔다. 그는 눈보라치는 벌판에 자력으로 풍막을 치고 그 속에 탄광 모형들을 만들어 놓고 연구에 골몰하였다. 그러다가도 모를 것이 있으면 작업복을 떨쳐 입고 수십 개의 막장에로 돌아 다녔고 경험 있는 채탄공들과 밤을 밝혀 가며 의논도 하였다.

(현실과 대중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그의 가슴 속엔 항시 이런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만 4 개월이나 현장에서 일하면서 경사도에 따르는 천반의 붕괴 거리에 대한 새로운 공식을 유도해 내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그가 신창 탄광에 나갔을 때였다. 어느 한 마구리에서는 생산이 오르지 않아 매달 계획을 미달하고 있었다.

《저도 오늘부터 작업반에서 일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작업복을 입고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 원인을 캐기 시작하였다. 알고 보니 이 곳 막장에서는 장벽식 채탄법이 맞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배운 지식들에 근거하여 새로운 채탄 방법을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굴진과 채탄을 련속적으로 할 수 있는 단면 붕괴식 채탄법을 적용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일부 일'군들은 재래식 방법에 매달리면서 그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자! 그럼 어디 한 번 대비적으로 해 봅시다.》

그는 직접 자기의 지도 밑에 새 채탄법을 적용했으며 그의 우월성을 탄부들에게 납득시켰다. 결과 다음 날부터 종전까지 미달되였던 마구리 당 생산 계획을 련속 110 % 이상으로 넘쳐 실행하게 되였다.

그의 이와 같은 진지한 학습 태도에 대하여 주위 동무들은 이렇게 말한다.

《리 룡암 동무야말로 학습과 실천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가장 훌륭한 모범입니다.》라고 …

그는 지금 인민 경제 발전에 필요한 부문의 과학 연구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라는 당의 가르침을 받들고 채굴 공업의 지압 통제 연구에서 커다란 물질 기술적 토대를 이루는 《광탄성 실험기》의 제작 완성에 자기의 정력과 재능을 남김 없이 바치고 있다.

그는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도 같이 수상 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일'군으로 당의 붉은 기사로 자라고 있다.

본사 기자 한 희만





리 민청 위원장

7 년 간을 리 민청 위원장으로서 사업한 상원군 중리 박 효선 동무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의 심정으로

7 년 전 박 효선 동무가 이 곳 리 민청 위원장으로 선거되였을 때 리내 청년들 중에는 모범적인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뒤떨어진 청년들도 적지 않았다.

(어떻게 하든 저들을 고쳐 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주의 제도의 풍만한 토양 우에 솟아 난 저 나무에 붉은 꽃이 만발하게 하리라. 북을 주고 거름을 주며 잘 가꾸어야 화려한 꽃이 필 수 있지 않는가!)

효선 동무는 기어이 이들을 교양하리라 마음을 먹었다.

(어머니를 따르지 않는 자식이 있는가? 어머니의 심정으로 일하면 못해 낼 일이 없을 것이다.)

효선 동무는 자기의 모범과 어머니다운 심정으로써 그들을 교양할 것을 결심했다.

내동에는 박 명택이란 청년이 있다. 고집이 세고 자유주의가 많아 언제나 사람들의 말'밥에 오른다. 어느 날 가래질을 하던 그는 삽을 동댕이치고 휑하니 집으로 들어 가 버렸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젊은 사람이 저러다간 한평생을 망치겠어.》

농장원들은 그만은 어찌 할 수 없다고들 하였다. 그러나 효선 동무는 매일 밤 그의 집으로 찾아 가 민청 생활은 어떻게 하며 청년들이 가져야 할 례의 범절은 어떤 것인가를 알기 쉽게 해설했다.

그러나 명택이는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다. 어떻게 첫술에 배가 부르겠는가! 효선 동무는 인내성 있게 접어 들었다.

사람을 교양하자면 우선 그의 지난날 생활과 성격을 깊이 료해하여야 한다. 효선 동무는 명택이의 환경과 성격을 알고 있는 10 여 명의 로인들과 청년들을 만났다.

원래 가난한 소작농의 집에서 태여난 그는 일찌기 부모를 여의였다. 고아로 된 명택이네 3 남매는 당숙 집에서 자랐다. 이렇게 자란 명택이는 자연히 생활이 무질서하고 고집이 센 사람으로 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부모를 그리는 마음은 누구보다 더했다.

《명택이 좀 생각해 보라구, 전에는 지주, 자본가 놈들의 등'살에 얼마나 고생을 했나, 명택이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도 지주 박 기연 놈 밑에서 죽을 고생을 다하던 것을 명택이도 알지. 그래 명택이처럼 해서야 돌아 가신 부모를 대할 면목이 있는가, 하물며 명택이는 어린 동생을 둘이나 데리고 있지 않나, 그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젠 좀 마음을 붙여 일하라구》

효선 동무의 한 마디 한 마디는 명택이를 움직이게 하였다.

《금년에는 명실 동무와 물이서 800 공수를 해야 해. 그리고 돼지를 두 마리 기르고 토끼도

한 50 마리 기르면 아마 부자가 될거야. 그래서 금년 중으로 라지오와 재봉기를 사고 또 명택이 장가 갈 준비도 해야지…》

리 민청 위원장은 가정 생활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워 주었다. 그리고 토끼 기르는 법까지 알려 주었으며 매주 한 번씩 그 계획 집행 정형을 총화해 주군 했다.

효선 동무의 지극한 정성에 명택이도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위원장 동무, 제가 잘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어이 일을 잘 해 보겠습니다.》자기 갈 길을 진심으로 깨달은 명택 동무의 생활과 사업에서는 놀랄만한 전변이 일어 났다.

효선 동무는 명택 동무의 결혼 문제도 발벗고 나섰다. 그는 리 민청 위원들과 의논했다. 명택이에게는 이미 내심으로 생각해 온 처녀가 있었다. 그 처녀가 있는 곳은 백 리나 실히 되였다. 그러나 혁명 동지를 위한 일이라면 백 리인들 어떠하며 천 리인들 멀다 하랴!

리 민청 위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거듭한 끝에 김 홍선 동무를 그 곳에 보냈다. 그러나 혼담이 첫 걸음에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그 후에도 세 차례의 방문, 10여 차의 편지를 통해서 끝내 약혼을 하게 하였다. 얼마 전에는 수많은 동무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했다.

50 여 차의 가정 방문, 수십 번에 걸치는 인내성 있는 개별 담화… 한 민청원에게 바친 효선 동무의 어머니다운 정성은 열매를 맺았다. 오늘 명택 동무는 리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청원의 한 사람으로 되였다.

명택 동무를 교양하는 과정에서 귀중한 경험을 체득한 효선 동무는 다른 민청원들도 교양 개조하기 위하여 짜고 들었다.

우선 민청원들의 형편과 성격, 취미는 물론 그의 가정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효선 동무는 매년 한 번씩 모든 민청원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의 애로가 무엇이며 일을 어떻게 하는가 등을 알아 보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그의 정도에 따라 위원들과 상논하여 제때에 해결해 주군 한다.

이렇게 효선 동무는 오늘 리 내 270 명의 민청원들에 대하여 그의 성격, 취미, 생일, 생활 형편, 심지어 숟가락이 몇 개나 되는 것까지 환히 꿰뚫고 있다. 사람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있으니 교양의 방도가 뚜렷해지여 자신심이 생긴다.

수년 간 민청원들을 교양 개조하는 데 바친 효선 동무의 정성은 열매를 맺어 그간 45 명의 민청원들이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녔고 10 명은 후보당원의 입당 보증을 받았다.

이신 작칙

지난 해 가을이였다. 지꿎은 장마가 계속되였다.

효선 동무는 집을 나섰다. 그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불 때면 매일 리 내 전답을 한 번 돌아 보는 습관이 있다 . 곡식들이 비'바람에 잘못되지나 않는가 해서이다.

동구 앞 개울에 이르렀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시뻘건 황토물이 기승을 부리며 개울이 미여지게 흘렀다. 물은 시시각각으로 불어 올랐다.

<이걸 어쩌나, 이대로 둔다면 삽시간에 온 논판은 홍수로 뒤덮이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15 정보의 논, 70 여 톤의 벼를 눈 깜빡할 사이에 잃고 말 것이 아닌가…>

그는 마을을 향해 달렸다. 가장 가까운 박 명실 동무의 집에 가서 동리 청년들을 모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는 개울'가로 되달려 왔다. 그는 사품치는 강물에 첨벙 뛰여 들었다.

세찬 물'살이 아래'도리를 후려갈렸다. 효선 동무는 가까스로 주위의 돌을 굴려다 쌓았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는 일이였다. 돌은 놓기가 바쁘게 물'살에 떠 내려 갔다.

효선 동무는 더 생각할 사이 없이 흙을 가



장 많이 파 가는 굽인돌이를 자기의 몸으로 막았다.

동무들이 연장을 메고 달려 왔을 때 그는 언덕에 서 있는 나무 뿌리를 두 손으로 움켜 쥐고 안'간힘을 써 가며 물'살을 막고 있었다.

《위원장 동무!》

《효선 동무!》

사람들은 앞을 다루어 물에 뛰여 들었다. 무려 2 시간 동안의 긴장된 투쟁 끝에 드디여 든든한 제방을 쌓았다.

《거 민청 위원장이 제때에 왔기에 다행이지, 여름 내 고생하며 지은 곡식을 몽땅 잃을 번 했소》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남 먼저 발벗고 나서는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다.

효선 동무는 농사'일에서도 누구보다 모범적이다.

(청년들이란 어려운 일에 앞장 서야 하며 일을 찾아 해야 한다.)효선 동무는 언제나 청년들을 이렇게 교양한다.

그는 자신이 아침이면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 뒤'산에 심어 놓은 어린 과실나무에 거름을 주군 한다. 이렇게 하여 지난 한 해 동안만 하여도 무려 3천 그루의 사과나무에 재를 주었다. 아침 저녁으로 수집한 산분만도 1 톤이 넘으며 유가족, 후방 가족들에게 수십 단의 나무도 해다 주었다.

그는 경제 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사상 교양 사업에서도 실지 모범으로써 청년들을 교양하고 있다.

기동 선동대원들에게 매 시기의 활동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직접 선동문도 써 주고 재담도 만들어 준다. 그리고 활동하는 방법도 일일이 지도하고 있다.

청년들이 모인 곳에 가면 먼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그는 지금 학습 강사이다. 지난 학습년도에는 《민청원의 의무와 권리》,《남북의 판이한 현상》 등 15 점의 도표와 직관물을 만들어 리용했다. 될 수 있으면 알기 쉬운 말로써 민청원들에게 배워 주는 것이 학습 강사로서의 그의 특성이다.

이렇게 자신의 체험과 모범으로써 리내 모든 학습 강사들을 실질적으로 도와 주고 있다. 하여 지난 1 년 동안에 민청 학습회를 단 한 번도 중단한 일이 없이 계획 대로 진행했다.

이렇게 리 민청 위원장의 모범은 민청원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내가 먼저 알아야 남을 교양할 수 있다》

이야기는 다시 7 년 전으로 되돌아 간다.

효선 동무가 리 민청 위원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는 것이 너무도 적었다. 상급 동맹 회의에 참가해서도 미처 다 받아 쓰지 못 했다. 열성은 대단하였으나 글을 잘 쓸 줄 모르니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었다.

마음 속으로만 고심하던 그는 어느 날 리당 위원장을 찾아서 민청 위원장을 하기 곤난하다고 제기했다.

《효선 동무, 반드시 글을 잘 써야 민청 위원

장을 하는 법은 아니요. 물론 글을 잘 쓰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불 같은 정열이요. 항일 빨찌산들은 그 간고한 투쟁 속에서도 학습을 중단하지 않았소. 락심 말고 학습에 더욱 노력하시오.》

(그렇다. 내가 비겁했다. 공부를 하자. 그래서 속한 시일 내에 중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을 소유하자.)

그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 붙었다. 아무리 일이 바쁘고 고단할 때에도 그 날 계획했던 학습만은 기어이 진행했다.

그는 모든 토막 시간을 모조리 학습에 리용했다. 산에 나무하러 가서도 쉴참에 책을 읽었고 길을 걸으면서도 공부를 했다. 멍석을 만들면서도 그 앞에 책을 세워 놓고 읽었다. 때로는 너무 늦게 공부하다가 멍석 앞에서 잠들군 하였다. 군에 회의를 가서도 휴식 시간이나 려관에서, 자기 전 시간을 다 학습에 리용했다.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한 보람이 있어 그의 지식 수준은 급속히 높아 갔다. 그는 금년 초에 있은 근로자 중학교 졸업 시험에 응시하여 최우등의 영예를 지녔으며 고등 농업 학교 통신 학생으로 입학했다. 이제 2 년이 지나면 그는 어엿한 농산 기수가 된다.

기술 학습 뿐만 아니라 정치 학습에서도 그는 모범이다. 처음에는 신문에 나오는 어려운 론설들을 잘 리해할 수 없었던 그가 지금은 신문, 잡지는 물론 김 일성 선집을 비롯하여 고전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있다.

그는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 가는 의무이다》라고 하신 수상 동지의 말씀의 진리를 자기의 학습 과정에서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였다.

효선 동무는 자신의 수준을 급속히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리 내 민청 열성자들의 수준을 높여 주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남을 교양하자면 우선 자기부터 알아야 한다.》

이것은 효선 동무의 사업에서 얻은 결론 중의 결론이다.

본사 기자 민 영철

《겉 모양 변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속 마음 바로 가짐은 진정
어려우니라. 참과 거짓을 분별해 보려거든 먼저
마음의 거울을 맑게 닦아라》

최 치원

《천하에 가장 천하고 호소할 데 없는 자는 백성들이다.
그러나 천하에 가장 존엄하고 산같이 무거운 자도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비록 높은 권력이 존엄하게 보이기는 하나
백성을 떠받들고 투쟁하면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 없다》

정 다산

(《여유당 전서》 제 5 집 제 18 권에서).

자본주의의 운명 (2)

김 정남

자본주의의 매장자

제국주의는 숨이 끊어져 가기는 하나 아직 붙어 있는 자본주의이며 죽어 가기는 하나 아직 죽지 않은 자본주의이다.

영국이나 미국을 보자. 병들어 썩어서 죽어 가는지가 벌써 반 세기 이상(제국주의 단계에 넘어 선 시기부터 계산하여)이나 지나 갔지만 아직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제국주의가 결코 저절로 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과연 제국주의를 멸망케 하는 력량이 있는가?

자본주의는 자체의 멸망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저주로운 사회를 뒤집어 엎을 사람들을 길러 낸다. 맑스와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부르조아지는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 오는 무기를 벼려 내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은 이 무기를 그들 자신에게 겨누는 사람들 즉 근대의 로동자, 프로레타리아들도 만들어 내였다.》(공산당 선언, 1958년 판, 35~36 페지)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자본가는 로동자들의 피땀을 짜내여 리윤을 얻음으로써만 살아 갈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로동자들을 고용하게 된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로동 계급의 대렬은 더욱 늘어 간다. 그런데 이러한 로동 계급이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할 힘으로 될 줄이야 어느 자본가가 알았겠는가! 자본주의는 좋건 싫건 그의 매장인을 길러 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자라나는 로동 계급은 처음부터 자본주의 사회와 등을 지고 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생산 수단도 없으며 사실상 그 어떤 자유와 권리도 없다. 그들은 일생 동안 자본가들에게 얽매여 착취와 억압을 받으며 이 저주로운 사회의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참고 견딜 리는 만무하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자본가 계급과 로동 계급 간의 대립은 날을 따라 더욱 날카로와진다.

제국주의 시기에 와서 이러한 모순은 극도에 달한다. 생산 수단도, 군대와 경찰도 모두 자기 손에 틀어 쥔 독점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의 피땀을 야수적으로 짜낼 뿐만 아니라 근로 대중의 강력한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자유》니, 《민주주의》니 하는 허울 좋은 간판마저 집어 던지고 파쑈 통치를 실시한다.

로동 계급은 입을 가지고도 마음 대로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가 되며, 눈을 가지고도 소경 노릇을 해야 하고 그 어떤 자유 권리란 말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로동 계급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나선다. 앉아서 죽느냐?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서 자본가들을 때려 부시느냐?

로동 계급은 가진 것이란 맨주먹 밖에 없기 때문에 투쟁에서 잃을 것이란 아무 것도 없으며 얻는 것은 온갖 찾취와 압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본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혁명성이 강하다.

이와 같은 데로부터 로동 계급은 이 두 갈래의 길에서 투쟁의 길, 자본주의 제도를 때려 부시는 길을 택하게 된다.

그러면 로동 계급이 일어나 싸운다면 자본주의 제도를 때려 부실 수 있겠는가?

물론 있다.

로동 계급은 수'적으로 볼 때 자본가보다 수천 수만 배나 된다. 그들은 맨주먹 밖에 없지만 공장도 제조소도, 철도도 통신도 다 그들이 움직이며 군대의 기본 력량을 이루고 있는 것도 사실상 로동 계급과 근로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들고 일어 난다면 도저히 견잡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로동 계급은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에서 집단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압박 계급들이 가지고 있던 약점인 분산성과 고립성을 극복하고 가장 강한 단결력과 조직성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로동 계급이 맑스-레닌주의 당의 지도 밑에 자기의 처지를 똑똑히 깨닫고 굳게 단결하여 싸워 나아가기만 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 뿐만 아니라 역시 반동적 지배 계급에게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받는 근로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이 자본주의를 반대하여 나선다. 로동 계급은 이들과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 결과 혁명 력량은 더욱 강대해지며 그 힘은 능히 자본주의를 타승할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45 년 전인 1917년에 로씨야 로동 계급은 레닌이 지도하는 공산당의 주위에 뭉쳐서 자본주의 제도를 때려 부시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제도를 세웠다.

그 후 우리 나라와 중국 등 아세아의 여러 나라와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자본가, 지주들이 주인 행세를 하던 저주로운 사회를 쓸어 버렸으며 진정한 인민의 제도를 수립하였다.

오늘도 아직 독점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을 받고 있는 나라의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성과에 고무되면서 계속 투쟁의 불'길을 높이고 있다. 불란서와 서반아에서, 영국과 이태리에서, 서부 독일과 희랍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이 나라들에서도 자본주의 제도가 무너지고야 말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낡은 봉건 사회가 멸망하고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가 발생 발전한 것처럼 자기 세기를 다 산 자본주의 제도가 새롭고 진보적인 사회주의 제도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것은 항거할 수 없는 발전의 법칙입니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1960년판, 133—134 페지)

문제는 그 나라의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이 얼마나 튼튼히 준비되여 있는가에 있는데 그것은 결국 시간 문제인 것이다.

4면 초가

여기에 또 다른 력사적 사정들이 첨가된다.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전면적인 총 붕괴에 직면한 것이다.

식민지—이는 제국주의 《보물고》이며 생명선이다. 바로 여기에서 제국주의 숨통을 끊는 거세찬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상한 일》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약소 국가들을 《원조》하며 그 나라 인민들을 《보호》하려고 한다는데 그런데 어째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을 증오하며 그들을 반대하여 싸우는 것인가?

여기에는 그럴만한 리유가 있다.

자본주의가 한창 발전하던 때에 돈'벌이에 눈이 뒤집힌 자본가들은 자국 내 인민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뒤떨어진 나라들에 자기의 피묻은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였다.

식민지는 그들에게 엄청난 돈'배를 불려 주었다. 같은 밑천을 들여도 여기서는 자국에서보다 수 배, 수 십 배의 리득을 볼 수 있었다.

놈들은 자원을 략탈하고 눅거리 상품을 비싸게 팔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국보를 도적질하고 사람들을 《사냥》해다 노예로

팔아 먹는 등 상상하기도 힘든 짓을 다 하면서 돈을 벌었으며 또 벌었다.

한 마디로 말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송충이처럼 악착스럽게 파 먹었다. 그리하여 놈들은 배를 불렸으나 식민지는 황폐화되였고 그 나라 인민들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당하였으며 죽고 또 죽어 갔다.

식민지 인민들은 빈번히 침략자들에게 반항하였으나 그 때마다 그들의 투쟁은 피바다 속에 잠겼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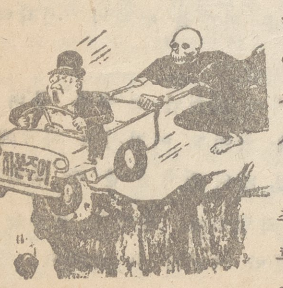
식민지 인민들을 십자가로 기만하며 총칼로 탄압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에서 더욱더 많은 것을 략탈하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그러기 위하여 광산을 개발하고 철도를 부설하며 공장을 세웠다.

그러나 여기서도 제국주의자들은 눈 밝은 소경 노릇을 했을 따름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략탈하면 할수록 식민지 인민들의 민족적 각성은 높아졌고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반항은 심해졌다. 더군다나 이 나라에서 로동 계급이 자라남에 따라 인민들의 해방 투쟁은 더욱 강화되였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은 로씨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 그 영향 하에 급속히 발전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1919년에 있은 전국적인 3.1 봉기, 중국에서의 5.4 운동을 비롯하여 인도, 페르샤 등 동방 여러 나라 인민들 속에서의 반제 해방 투쟁은 이에 대한 명백한 실례로 된다. 투쟁은 세계 제 2 차 대전 후 더욱 앙양되였다. 하긴 한때에 제국주의가 《강대하다》는 신화가 일정한 효과를 가지고 있은 것만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미제가 조선 전쟁에서 령토와 인구상으로 보아 그리 크지 않은 우리 인민에게 불벼락을 맞고 무릎을 꿇은 다음에는 모든 사실이 더욱 명백해졌다.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는 산산이 부서졌다. 제국주의의 괴수인 미제가 그러하건대 다른 제국주의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하랴!

조선 전쟁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게 일어나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인민들은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제 2 차 대전 후 벌써 40 여 개의 나라들이 독립을 쟁취하였다. 그리하여 제 2 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이 세계 인구의 무려 4 분의 3을 차지하였는데 오늘은 그 수'자가 35 분의 1도 못되는 형편에 이르렀다. 식민지는 제국주의의 중요한 생명선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숨통 역시 끊어져 가고 있다.

아세아에서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암흑 대륙》이라고 불리우던 아프리카에서도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뒤'동산》이라고 하던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과거 한때에는 많은 사정이 제국주의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되여 있었다. 그러나 오늘에는 그 어떤 력사적 사정도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모두 불리할 뿐이며 그들의 멸망을 촉진시킬 뿐이다.

이것이야말로 4면 초가가 아니고 무엇인가.

망해 가는 놈들의 개싸움

다음과 같은 일을 상상해 보자—

한 무리의 강도들이 있는데 략탈할 대상도 줄어 들고 벌이가 점점 나빠지게 되여 어쩔 수 없는 궁지에 빠졌다는 것을.

그러면 그 무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별의별 일이 다 일어 날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은 어떻든 개싸움일 것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신세가 바로 이렇게 되였다. 례를 들어 보자.

멸망한 히틀러의 대를 이은 서부 독일은 미제의 비호 하에 추어 섰으며 불란서, 이태리 등과 야합하여 영국이 구라파 대륙에 경제력을 뻗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 중근동 등에서도 미국과 영국 간에 석유라고 하는 《고기'덩어리》를 사이에 두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며 동남 아세아에서는 이러한 싸움에 일본이 끼여 들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관계는 언제나 그러했으며 또 그러하다. 놈들은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가 더 많이 먹을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 관계에서도 승냥이의 법칙이 작용한다.

그들 간의 문제는 바로 어느 놈이 힘이 센가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 간의 개싸움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면 제국주의 렬강 간의 이러한 싸움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가에 대하여 력사적으로 따져 보자.

한때에는 영국, 불란서, 짜리 로씨야 등이 세계 도처에 아주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뒤미처 발전하였으나 빨리 발전한 독일과 그리고 오지리, 웽그리야, 이태리 등은 다른 강도들이 식민지를 더 많이 차지한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드디여 그들 사이에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졌는데 규모는 그 때까지 력사에 없었던 큰 전쟁이였다. (제 1 차 세계 대전)

전쟁은 독일을 비롯한 소위 《동맹국》의 패배로 끝났다. 《승리자》들은 패배자들이 차지했던 것을 제마끔 한 몫씩 나누어 먹었지만 그들 역시 기진 맥진해졌다.

일본은 이미 결판이 나기 시작하였을 때에 우세한 편에 붙어서 크지 않은 몫을 물어 냈으며, 미국은 전쟁 중에 《흐린 물에 고기잡이》하는 격으로 굉장한 벌이를 하였다.

그러나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급속히 추어 선 독일은 복수를 시도하였으며 일본은 자기 몫이 적다고 불만이였다. 그들은 다른 강도들에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하였는데 이 번에는 전보다 더 큰 싸움이 벌어졌다. (제 2 차 세계 대전)

전쟁의 결과 독일과 일본 등이 패망하였으며 영국, 불란서 등은 맥이 빠져서 제 2 등급의 지위에 떨어지게 되였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에서 힘을 아껴 가면서 리득을 본 강도는 미국인데 오늘 미제는 다른 강도들을 누르고 두목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은 결코 순조롭지 못 하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의 《활무대》가 점점 줄어 들고 있으며 미국, 영국, 불란서, 일본, 서부 독일 등 제국주의 호상 간의 모순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물론 오늘 제국주의 렬강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 자본주의 나라에서의 로동 운동을 공동으로 반대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모순을 무마시키려고 애쓴다.

그러나 강도들의 《통일》이란 원래 개싸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며 궁지에 빠진 자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더욱 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모든 싸움은 언제나 그랬던 바와 같이 그들의 멸망을 더욱 촉진시킬 뿐이다.

결론은 오직 하나

우리는 우에서 독점 자본가들을 반대하여 자국 내의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이 들고 일어나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투쟁이 그들의 숨통을 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지에 빠진 제국주의자들은 저들끼리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럴수록 제국주의자들은 멸망에 직면한 자본주의 세계를 어떻게하나 부지해 보려고 더욱 미쳐 날뛰고 있다.

놈들은 《구원》의 길을 그 나라에서 로동 운

동을 탄압하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말살하는 데서 찾으려고 하며, 더우기는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전쟁 소동에서 찾으려고 한다.

끊임 없는 《반공》 나발, 군사비를 계속 높이며 여기저기에 군사 기지를 거미줄처럼 늘여 놓고 있는 것, 패망한 독일 파시스트들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다시 추켜 세우는 것,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각종 도발 책동 등등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는 남조선에서 놈들이 하는 짓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한 가지 실례만 보더라도 1953년 7월 27일부터 1962년 5월 말까지 미제가 제놈들도 서명한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감행한 각종 도발 사건은 정전 위원회에 제기된 것만 하여도 무려 3913 건이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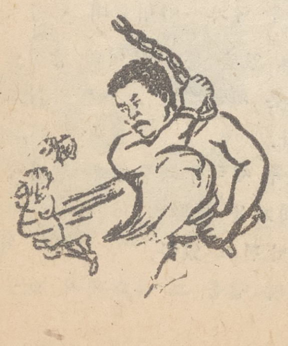
또 대만에서는 송장이 되고 있는 장 개석을 부추기여 중국 인민을 반대하는 전쟁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남부 월남에서는 이미 이른바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사회주의 진영과의 싸움에서 그 어떤 승산이라도 있단 말인가? 케네디는 그 결말이 《확연치 않다》고 애매한 소리를 쾌쳤지만 우리는 그 결말이 확연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두 힘을 간단히 대비해 보자.

제국주의자들은 궁지에 빠져 있는데 사회주의 진영은 나날이 륭성 발전하고 있다.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는 경제가 마치 증환자 체온처럼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사회주의 진영은 최근 10년 동안에 공업 생산이 년 평균 13.7%씩 장성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 년간에 공업 생산에서 매년 36~40%



또는 그 이상의 증가 속도를 보장하였다.

군사적 면에서도 사회주의 진영은 제국주의 세력보다 비할 바 없이 강대하다. 우리에게는 놈들이 덤벼 들기만 하면 단숨에 쓸어 버릴 위력한 무기가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 나라 인민 대중으로부터 고립되여 있으며 그들끼리도 개싸움을 하기가 일수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은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는 투쟁에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되여 있다.

그러니 결론은 명백한 것이 아닌가!

언제나 새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에서는 새것이 승리하고 낡은 것은 멸망하는 법이다. 이것은 력사의 발전 법칙이다.

지구 상에 사회주의 국가 쏘련이 탄생한 것은 45년 전 제 1 차 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였다. 두 번째 세계 대전의 검은 구름이 떠돌 때 제국주의자들은 그 전쟁을 쏘련을 멸망시키는 데로 돌리려고 날뛰였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 멸망하고 쇠약해진 것은 제국주의 나라들이며 사회주의는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인 체계로 되였다.

그리하여 오늘은 이미 13 개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기'발이 기운차게 휘날리고 있다. 이 나라들은 세계 령토의 4분의 1,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50년 가까운 기간에 제국주의자들의 형편은 어떤 몰골이 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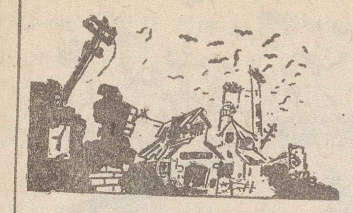
처음에는 그 자들이 세계를 몽땅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제국주의나라들은 세계 인구의 불과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며 그것마저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만일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여 전쟁을 도발한다면 자본주의의 운명에는 끝장이 날 것이다.

조선 전쟁을 보라, 미국을 비롯한 16 개국의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압살하려고 덤벼 들었지만 패배한 것은 그 놈들이였다. 심지어 그 《강대한》 미국이 제 코앞에 있는 조그마한

(35 페지에 계속)

수자와 사실



암흑의 남조선

1960년 남조선 공업 총 생산액은 일제 말기의 3분의 2, 군사 정변 후 또 10% 감소.

8. 15 후부터 1957년까지의 기간에 400 여 개의 공장, 기업소 파산 몰락.

★ 1962년 남조선의 실업자 및 반 실업자 수 600~750 만 명

1961년 알곡 생산량 일제 말기의 75%, 1962년에는 1961년 보다 400 만석 감소.

금년도 식량 부족량 1000 여 만석. 해마다 절량 농가 100 만호 이상 (금년에는 130 만호)

남조선 취업 로동자들의 임금 최저 생활비의 32 %, 일부 제조업과 수산 부문 로동자들의 임금은 최저 생활비의 16.4 %에 불과하다.

★ 남조선에서 군사 정변 이후 각종 범죄 사건은 월 평균 2만 6천 272 건 발생, 1962년에 서울에서만도 각종 범죄 사건 16만 8천 643 건 발생, 그중 1962년 12월 24~25일 량일 간에 발생한 소년 범죄 사건만도 2535 건.



1961년 중요 공업 제품의 인구 1인당 생산량

제품별	북반부	남반부	비 률
전 력	919 kw-시	70.7 kw-시	13 배
석 탄	1098 kg	235 kg	4.7 배
선철(립철)	87 kg	0.36 kg	242 배
강 철	72 kg	1.84 kg	39 배
세멘트	212 kg	21 kg	10 배
비 료	62 kg	2.6 kg	24 배
뜨락또르 총 생산량	4001 대	없음	4001 배
수산물	55 kg	16 kg	3.4 배

★ 남조선에서 자살자 수 해마다 평균 인구 10 만명 당 28 명, 남조선 인구 2천 만으로 계산할 때 매년 평균 5600 명이 자살.

★ 남조선에서는 매년 결핵 감염자가 12만 명씩 증가, 결핵 감염자 수 남조선 전체 인구의 70%(800만 명)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 매일 평균 114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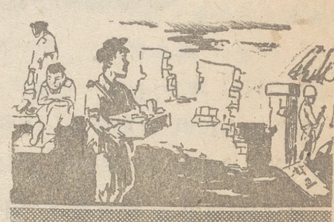
남조선 전체 인구의 90%가 기생충 보유자, 지스토마 환자는 남조선 전체 인구의 41%, 12 지장충 환자는 40 %, 정신병 환자 30만 명, 문둥'병 환자는 20 만 명, 성병 환자는 60만 명, 남조선 아동의 70 %가 소아 마비 환자.



★ 남조선의 학령 아동 중 미취학자 100 만 명, 류랑 걸식하는 고아 20 여만.

현재 남조선에서 교실 부족 수는 무려 3만 5천 여 개.

금년도 각급 학교 입학생 매인당 부담액은 공립 중학교가 3천



525 원, 공립 고등 학교가 1만 4천 365 원, 초급 대학이 11만 1천 550 원, 일반 대학은 11만 7천 100 원.

1961년 현재 12 세 이상의 문맹자 수 357 만 명, 국문 반해득자 110 만 명.

★ 남조선에서 현재 주택 부족수 140만 여 호, 1962년 서울시의 주택 부족수 26만 5천 500 여 세대, 서울시 전체 가옥의 96 %가 판자'집, 토굴 오막살이 초가집.



피로 물든 양키의 죄악사(3)



미제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

임 재 순

미제의 력사는 피비린내 나는 침략과 전쟁의 력사이다. 제국주의의 괴수인 미제는 전쟁을 도락으로 삼아 온 호전광이며 피에 굶주린 승냥이다.

미국이 이 세상에 출현한 이후 19 세기 말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무려 8900 여 회의 전투와 군사 작전을 포함한 114 회에 달하는 전쟁을 감행하였다. 피에 굶주린 승냥이들은 이 끊임 없는 전쟁, 침략 도발로써 세계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재난과 불행을 끼쳤으며 수천년을 두고 인류가 쌓은 문명과 재부를 파괴 략탈하였으며 그 대'가로 막대한 돈'벌이를 하였다.

1776년부터 1783년까지의 독립 전쟁에 의하여 형성된 미국은 그 첫날부터 강도적인 침략과 대외 팽창 정책을 실시해 왔다.

미국 상인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새로운 상품 판매 시장과 원료 원천지를 구하기에 미친듯이 날뛰였다. 미국 팽창주의자들은 사기, 협잡, 위협, 공갈, 공개적 무력 침공 등 가장 파렴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자기의 령토를 팽창하였다.

미국 지배층들이 령토 팽창을 위하여 처음으로 노린 땅은 북미주의 아파라치아산맥으로부터 미씨십피강에 이르는 지역이였다. 이 지역은 독립 전쟁 당시에 벌써 무력으로 강점하였다.

이러한 첫 대토지 강탈이 있은 다음 다시 루이지아나를 《매수》하려고 책동하여 1803년에 1 에커당 4 센트의 헐값으로 260만 평방 킬로 메터에 달하는 비옥한 지역을 탈취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략탈이였다.

루이지아나 지역을 병합한 이후 미국 지배층들은 비옥한 플로리다를 강점하는 데 착수하였다. 당시 플로리다 반도는 서반아의 식민지였다.

미국 침략자들은 여기에 자기의 이주민을 마구 들여 보내고는 1819년에 서반아가 곤난한 형편에 처한 기회를 리용하여 플로리다의 이주민들로 《혁명》을 조작하고 《이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구실 밑에 15만 2천 평방 킬로 메터에 달하는 이 식민지를 탈취하였다.

미국 팽창주의자들의 침략적 야욕은 계속 장성하여 그 이후에는 풍부한 자원이 매장된

서부 지방으로 침략의 마수를 뻗치였다.

그리하여 1846년에 무력적인 위협으로 오레곤을 강점하였다. 결과 미국의 령토는 북미주에서 대서양 연안으로부터 태평양 연안을 련결하는 광활한 지역을 포괄하게 되였다.

침략과 략탈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 승냥이들은 다시 남부에 대한 령토 확장에 착수하였다.

바로 그 대상이 멕시코였는데 멕시코의 령토를 강탈하기 위한 그들의 책동은 그야말로 파렴치하고 강도적이였다. 멕시코의 방대한 령토를 략탈하기 위한 전쟁 구실을 찾기 위하여 당시 멕시코 땅이였던 텍사스에 수천 수만의 이주민을 보내고 그들이 반멕시코 폭동을 일으키도록 사촉하고는 《텍사스 독립 정부》를 조작하여 그것을 미국에 병합하였다.

이러한 도발 행위에 대하여 멕시코인들은 응당한 항의를 하였다. 미제는 이것을 구실로 멕시코에 대한 략탈 전쟁을 도발하였다.

1846년 5월부터 1848년 9월에 이르는 기간의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양키들은 자기들의 의도 대로 250만 평방 킬로 메터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을 멕시코로부터 떼내였다.

그 후 미국 지배층들은 짜리 로씨야의 재정 형편이 곤난한 사정을 리용하여 1867년에 720 만 딸라의 헐값으로 본래 미국 령토의 2 배 이상이나 되며 수억 딸라의 금과 동이 매장되여 있는 아라스카를 략탈하였다.



19 세기 후반기부터 미제는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강탈과 침략을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하였다.

큐바, 푸에르토리코의 강탈, 파나마 일대의 강점 기타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100 여 차에 걸치는 침략과 간섭 등이 끊임 없이 감행되였다.

1911년에는 혼듀라스 공화국을 예속시키고 니카라과에 대한 지배도 강화하였다. 1915년에는 미국 해적들이 하이티 공화국을 점령하고 2천 여 명 이상의 주민을 학살하였다. 1916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점령하고 1917년에는 버지니야 군도를 탈취하였다.

미제는 제 1 차 세계 대전 기간에 교전 쌍방에 무기와 군수 물자들을 팔아 먹고 1 천만의 전사자와 2 천만의 전상자들이 흘린 피로 자기들의 배를 더욱 불리였다. 미국 재벌들은 1 차 세계 대전 기간에 세금을 제외하고도 2 배 이상(1914년에 비하여 1917년에는 203%)의 리윤을 짜 내였으며 미국은 채무국으로부터 일약 100억 딸라의 채권국으로 되였다.

제 1 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1920년에 미제는 과테말라를 침략했고 1921, 1923, 1924년에 니카라과, 파나마 및 혼듀라스에 대해서도 침략하였다.

월가의 백만 장자들은 제 2 차 세계 대전 기간에도 마샬 군도, 마리아나 군도 및 태평양 상의 일련의 도서들을 탈취하였으며 오끼나와를 실제상 자기들의 식민지로 전변시켰다.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 미제는 새 시장과 새로운 원료 원천지들을 점탈하였으며 570억 딸라를 벌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에도 미제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20 여 차에 걸친 군사 정변 음모를 조작하였다.

× ×

미 제국주의자들은 침략과 전쟁의 길에 들어 서던 첫날부터 조선 인민과 아세아 인민의 흉악한 원쑤로 등장하였다.

미국 침략자들은 아세아 인민을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벌써 19 세기 초부터 아세아에 배회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비옥한 토지를

략탈하며 막대한 량의 상품을 매점함으로써 토착 주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고 이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는 등 침략의 길을 닦았다.

1839년에 중국 인민들의 아편 수입을 반대하는 투쟁에 대답하여 영국 침략자들이 《아편 전쟁》을 도발하였을 때 미국 대통령 아담스는 이 류혈적인 침략 전쟁을 《공정》한 것으로 극구 찬양하면서 영국의 침략 전쟁을 리용하여 중국을 침입하는 길을 개척하려고 타산하고 자기들의 함대를 급히 중국 해역에 출동시켰다.

미국은 전쟁의 결과 조성된 사태를 중국을 노예화하는 시초로 리용하였으며 새로운 침략의 특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1844년에 불평등적인 중미 《망하 조약》을 강요하였다.

중국에 대한 침략에 때를 같이 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도 본격화하였다. 《태평양 연안에서 금산이 많기로 첫 자리를 차지》하는 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망은 벌써 100 여 년 전부터였다.

미국 해적선들은 1851년 경상도 동래 룡당포에, 1866년 3월에는 부산에 침입하였으며 1866년 7월에는 《샤만호》가 대동강 중류까지 침입해 왔으며 1868년 4월에는 미국 강도들이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덕산군에 기여 들었고 1871년에는 조선 원정 함대가 강화도에 침입하여 무력 침략을 감행하였으며 1882년에 이르러 미제는 예속적이며 불평등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강요하였다.

미제는 그 후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침략 정책을 적극 방조하여 주는 대'가로 비률빈과 기타 아세아 지역에 대한 자기의 침략을 일제로부터 《비호》 받았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미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악랄한 형태와 방법으로 강화하였다.

1950년 6월 미제가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은 전 조선을 강점하고 새로운 세계 대전을 도발하여 파산된지 오랜 《아세아 제패》에 대한 야망을 실현하며 나아가서 세계 제패의 돌파구를 뚫어 보려는 광란증의 산물이였다.



전쟁의 화근은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나 미제의 어떠한 침략도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 궐기한 조선 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었으며 오히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군은 무릎을 꿇고야 말았다.

제국주의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페지를 열어 놓은 미국의 력사는 전쟁과 침략과 략탈로 일관되여 있다.

침략과 전쟁을 본업으로 삼는 강도적 본성으로 일관된 력대 전쟁 광신자들의 혈통을 이어 받은 미국의 35 대 대통령 케네디는 침략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오늘 더욱 악착스럽게 침략과 식민지 략탈에 광분하고 있다.

오늘 케네디의 《국부 전쟁》, 《특수 전쟁》을 배합한 이른바 《총 전략》이란 무너져 가는 자기들의 통치를 유지해 보려고 발광하는 궁여지책이다. 그들은 세계 도처에서 군사 기지를 확대하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곳에서 전쟁 광란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침략 책동은 오히려 전 세계 인민들의 반제, 반미 투쟁을 더욱 강화시켜 주고 있다. 만약 미제 침략자들이 력사의 준엄한 교훈을 찾을 대신 함부로 분별없이 날뛴다면 그들은 파멸적인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며 히틀러나 도조처럼 자기가 지른 불'길에 타 죽고 말 것이다.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미제의 모든 침략 책동을 걸음마다 폭로 분쇄하고 놈들을 우리 조국 강토에서 하루 속히 몰아 내고 조국 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설비 점검, 보수와 예비 부속품 선행은 생산 조직의 법칙

김 동 호

우리 당은 설비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하고 그 리용률을 높일 데 대한 과업을 금년도 10 대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대안 전기 공장 현지 지도에서 설비를 제때에 점검 보수하고 예비 부속품을 앞세우며 자재와 설계를 선행시키는 것은 생산 조직에서 한개의 법칙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비 관리 사업을 잘 하며 설비 리용률을 적극 높임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할 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기계, 설비는 생산 활동에서 기본 무기이다. 따라서 기업소들에서 매개 설비들을 잘 관리하며 그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제고하는 것은 생산 발전의 필수적인 요구이며 기본 문제의 하나이다.

김 일성 동지는 설비 리용률 제고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들은 한 대의 기계도 놀리지 말아야 하며 더욱 빨리 돌아 가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기계를 잠시라도 놀리게 한다는 것은 인민 경제 발전의 속도를 그만큼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계가 잠시도 쉬지 않고 분주히 돌아야만 우리는 빨리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많다고 해서 항상 생산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니다. 적은 기계라도 쉬우지 않고 빨리 돌릴 때 많은 기계를 오래 동안씩 놀리면서 천천히 돌릴 때와 같은 생산을 낼 수 있다.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간상으로 많이 돌려야 하며 돌발 사고를 없애고 기계가 보수에 머물러 있는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일상적인 점검 및 계획적인 예방 보수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예비 부속품 생산을 3 개월 분 이상 선행하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돌발 사고가 생기고 계획 외의 보수가 빈번하게 되고 보수 기간이 계획보다 연장됨으로써 결국은 생산의 정상화를 파괴하며 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생산 조직에서 준수하여야 할 하나의 법칙이다.

설비의 점검과 예방 보수

일상적인 점검과 계획적인 예방 보수는 그 목적이 기계의 마모를 감소시키고 사고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기계가 항상 자기 능률을 내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점검이란 무엇인가? 기대의 가동 상태, 로동자들의 표준 조작법 준수 정형, 기계의 적시적 조절 등을 감독함으로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의 사소한 결함들도 미연에 퇴치하기 위한 《종합적 건강 진단》이다.

점검은 주기적으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진행되여야 한다. 점검이 일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될 때 돌발 사고는 미연에 적발되여 방지될 수 있다.

설비의 점검은 매개 기대공들 자신이 주인된 립장에서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그 기계에 대하여서는 기대공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기대공들과 운전공들이 아직 다 설비에 정통하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와 또한 사회적 통제와 자극을 주기 위하여 《설비 점검의 날》을 정하고 설비 점검 위원회 성원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대안 전기 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들의 경험은 그것이 설비 점검의 우월한 방법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성진 제강소에서 하고 있는 업간 점검 제도(교대 작업시 진행하는 점검)과 집중적인 기술 점검(기술 일'군들이 동원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의 실시 등은 점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이다.

점검은 《외부적 방법》으로 즉 기계의 상태를 눈으로 보던가 기계 소리를 귀로 들어서 결함을 알아 내고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경험과 기능이 요구된다. 때문에 기대공들과 점검 보수공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급속히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점검에서 얻어지는 자료는 기계의 상태를 파악하고 보수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된다.

설비의 계획적인 예방 보수란 무엇인가?

기계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날'자에 기계를 해체하고 못 쓰게 된 부분품들을 바꾸어 넣으며 기계의 정밀도를 회복함으로써 다음 보수 시기까지 작업할 수 있는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진행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설비의 계획적 예방 보수는 그의 규모와 로동 용량, 보수 자금의 원천에 의하여 소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한다.

계획적 예방 보수를 잘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광범한 집체 토의에 기초하여 보수 계획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 작성의 기본 문건인 설비 보수 주기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설비 보수 경력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설비 보수 주기표는 그 기계의 전 사용 기간에 어떤 형태의 보수를 몇 번하여야 하며 언제 하여야 한다는것을 보여 주며 보수 경력서에는 지난 기간 진행한 일체의 보수 내용과 기계의 특성이 기록된다. 보수 계획은 보수 그라휘크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에 립각하여 반드시 제정된 기일에 질적으로 보수하며 선진적 보수 방법과 보수 공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설비 보수에서 선진적인 우젤식 보수 방법(기계의 한 개 부문을 담당 교체하는 보수 방법)을 도입하며 선진 제강소에서와 같이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보수(보수 력량을 분산시키지 않고 통일적으로 장악하여 한 개 대상에 집중시키는 보수 방법)를 실시하는 것도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

예비 부속품의 선행

기계와 설비를 질적으로 짧은 기간에 보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비 부속품 생산을 선행시키는 것이다.

예비 부속품이란 무엇인가? 기계의 점검 또는 계획 보수를 할 때 낡아서 못 쓰게 된 부문품 대신에 바꾸어 넣기 위하여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모든 부속품을 말한다.

예비 부속품들의 3 개월 분 선행은 설비 리용률 제고의 결정적 담보이며 사회주의적 생산 조직에서 하나의 법칙으로 된다. 왜냐하면 오늘의 생산은 현대적인 기계 설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계 설비의 정상적인 가동은 정상적인 보수를 필수적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타산된 예방 보수 계획도 해당한 예비 부속품의 철저한 선행이 없이는 그 집행을 보장할 수 없다. 예비 부속품은 반드시 과학적으로 타산된 정확한 보유 기준에 의하여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3 개월 분 이상 철저히 확보하여야 한다.

예비 부속품이 덮어 놓고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무리 많다고하여도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 기대별로 완전히 준비되여 있지 않다면 그것은 쓸모가 적다. 예비 부속품은 적으면서도 보수시에 갈아 맞출 수 있는 부속품이 항상 있는 것이 좋다. 예비 부속품의 가장 합리적인 선행 기간은 3 개

월이다. 이것은 소재 및 가공 단계를 걸치는 기계 생산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매개 부속품이 각종 공정을 걸쳐서 완전한 제품으로 되기까지는 오늘 기술 발전 단계에서 대개 3 개월이면 충분한 것이다.

예비 부속품이 선행되면 설비 보수의 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 보수 기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다.

대안의 사업 체계를 일반화하고 청산리 방법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설비 점검, 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예비 부속품 생산을 3 개월 선행시켜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변들이 일어 나고 있으며 거대한 예비들이 탐구되고 있다.

대안 전기 공장의 《붉은 기대 쟁취 운동》, 평양 탄광 기계 공장에서 발기한 《기계 대렬 경쟁》은 설비 관리 사업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을 한 공장의 범위가 아니라 전국가적 범위에서 진행함으로써 이 투쟁을 한계단 더 높이고 있다.

아오지 탄광에서는 예비 부속품 생산을 계획화하여 부하가 덜어진 공무 력량으로 쓰지 못 하던 1,000 여대의 각종 기대 설비를 수리 재생하여 현존 설비 리용률을 높임으로써 국가로부터 받기로 했던 3백 마력 대형 권양기를 비롯한 4 대의 권양기, 74 대의 각종 전동기, 8대의 전차, 310 대의 탄차를 포함한 1,420 대의 기대 설비를 받지 않고도 생산을 더 훌륭히 보장할 수 있는 예비를 탐구하였다.

일상적으로 설비를 점검하고 계획적 예방 보수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은 몇몇 전문 설비 관리 일'군이나 생산 지도 일'군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설비 관리 사업에 모두가 자각적으로 동원될 때만이 이 사업은 성과 있게 해결될 수 있다.

청년들은 자기의 기계 설비들을 눈'동자처럼 애호하며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28 페지에서 계속)

나라 큐바에 덤벼 들었다가 불벼락을 맞고 혼쌀이 나는 지경이 아닌가!

그러니 결과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연한 것이다.

그러면 제국주의자들은 무엇 때문에 뻔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승산도 없는데 전쟁을 도발하려고 날뛰는가?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멸망해 가는 자들의 최후 발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놈들의 멸망을 더욱 촉진시킬 뿐이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만일 인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손발을 얽어매여 놈들이 세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면 그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국에서는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이 저주로운 자본주의 제도를 뒤집어 엎을 것이며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은 제국주의를 쓸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 어쨌든 결론은 오직 하나,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 뿐이다.

그리하여 착취와 억압이 지배하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는 지구 상에서 영원히 없어지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가 온 세계를 뒤덮게 될 것이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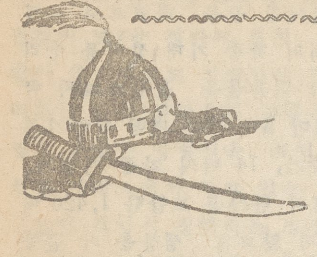
우리는 우에서 낡고 썩어빠진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 한 나라의 테두리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것을 보았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에 날카로운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 이러한 신심을 굳게 지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한갖 신념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다. 《…**제국주의의 패망이 빨라지는가 늦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투쟁 여하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김 일성 선집 1960년도 판 제 4 권 226 페지)

우리는 승리의 신심을 굳게 가질 뿐만 아니라 최후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야 한다. (끝)

조선의 명인



김응서

김 세 익

김 응서(金應瑞)장군은 16세기 말~17 세기 초 남북으로부터의 외적 침입을 반대한 조선 인민의 간고한 투쟁 시기에 인민들과 함께 영웅적으로 싸워 후세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 온 애국적 장군이다.

장군은 1564년 11월 6일에 평안도 룡강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부친은 무과에 합격하여 군관으로서 복무하였으며 모친도 무관 가정의 출신이였다. 이렇듯 량친이 다 군사 부문과 련결되여 있었기 때문에 장군은 어려서부터 군사 부문에 대하여 특별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벌써 7~8세 때부터 모래와 흙으로 성을 쌓고 나무가지를 꺾어서는 군대를 만들어 공방전을 벌리게 하는 등 군사 작전 놀이를 즐겨하였다. 13세 때에 그는 전쟁에 관한 력사 서적을 읽다가 옛날 장군들 중 전쟁에서 패배한 대목에 이르면 문득 일어 서서 《이렇게 하면 이겼을 것인데!》 하고 군대를 지휘하고 적을 치는 시늉을 하였다고 한다. 후세 애국적인 명장으로서의 싹은 벌써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움트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김 응서 장군이 성장하던 시기는 국내적으로는 봉건 통치 계급의 부패가 심하였고 가혹한 봉건적 착취로 말미암아 많은 농민들이 살'길을 잃고 류랑하여 농토는 황폐화되였으며 지배 계급 내부에서는 우리 나라 력사 발전에서 그처럼 큰 해독을 끼친 당쟁이 바야흐로 발생하던 시기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일본 해적들과 녀진족들이 남북으로부터 침입하여 남서 해안 일대와 북부 국경 일대를 소란케 하였으며 때로는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애국적 열성으로 들끓고 있던 청년 김 응서는 무관으로 되여 외래 침략자들 물리침으로써 조국의 평화를 보전하며 나라를 부강 발전시킬 굳은 결심을 품고 20세의 청년으로 무과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그에 합격하였으며 그 해 12월에 리진 권관(利津權管)으로 임명되였다. 이 때로부터 김 응서 장군은 그의 전 생애를 조국의 국방 초소에서 보내였다.

무과 시험 과정에서나 리진 권관 당시에 벌써 장군은 재능 있는 군사 지휘관이라는 것이 알려졌으며 또한 출신 엄격한 규률에 복종할 줄 알며 청렴한 품성의 소유자라는 것이 알려졌다.

1592년 임진 조국 전쟁의 발발은 전체 우리 인민들을 침략자를 반대하는 정의의 투쟁에로 궐기시켰다. 김 응서 장군은 인민들의 애국적 궐기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사랑하는 고향의 중심 도시인 평양 해방을 위한 작전에 참가하였다. 당시 장군은 부친의 병환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얼마 후 부친이 사망하였다는 부고를 받았으나 집으로 달려 가지는 않았다.

1594년 모친이 사망하였다는 부고를 받았을 때에도 그러하였다. 그는 왜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고 있을 때 자기 일신의 슬픔 때문에 적과의 싸움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인민들은 한결 같이 김 응서 장군의 지휘 하에서 적과 싸울 것을 지원하여 나섰다. 그리하여 김 응서 장군은 룡강, 강서, 삼화, 증산 등 4 개 지역 인민들로써 편성된 부대를 거느리고 평양성 서부 전선 20여 개소에 군사 거점을 설치하였으며 평양성을 나와서 인민들의 식량과 재물을 략탈하려고 시도하는 적들을 포착 섬멸하였다. 이리하여 평양성에 기여 들었던 침략군은 순안에 지휘부를 둔 체찰사 리 원익(李元翼)이 지휘하는 우리의 주력 부대에 의하여 북방에로 진격할 길이 완전히 봉쇄되고 있었으며 서부 지역에서는 김 응서 장군의 부대에 의하여, 대동강 방면으로는 수군장 김 억추(水軍將金億秋)가 지휘하는 해군에 의하여 그리고 남부 지역에서는 중화 방면의 림 중량(林仲樑)의병 부대에 의하여 포위 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리 순신 장군이 거느린 우리 해군이 남해에서 련전 련승하고 있는 사실은 평양성을 해방하기 위하여 집결한 우리 군대들의 사기를 크게 고무하였다.

이렇듯 륙해 량 전선에서 정세가 우리에게 더욱 유리하게 전변된 조건에서 평양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군 부대들은 일대 위력 시위로써 적을 더욱 위축 고립시킬 작전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1592년 8월 1일 평양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군 부대들은 적에 대한 일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간 거듭된 전공에 의하여 방어사(防禦使)로 승진한 김 응서 장군은 이 전투에서 1만의 군대를 지휘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명장으로서의 이름을 더욱 떨치게 되였다.

평양성 해방에 대한 절실한 념원은 김 응서 장군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를 더욱 크게 하였으며 그는 인민들의 이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조국과 인민에게 더욱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였다.

평양성 공격 전투 후 적들은 밤이 아니면 감히 성 밖에 나서지 못 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장군은 앞으로 있을 평양성 해방 전투에 대처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 데 힘 썼다.

장군은 평양성 주변에 부대들을 매복시키고는 의병 부대들과 협동하면서 성 밖으로 기여 나오는 적들을 모조리 잡는 일방 성 내에 대한 정찰을 일층 강화하였다.

그런데 당시 적들은 우리의 포위환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데 당황하여 평양 성내의 민가를 헐어서는 토굴을 만들고 각처에 방어 시설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평양 해방을 위해서는 치렬한 시가전이 예견되였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들이 새로 구축한 토굴과 참호들을 구체적으로 료해 파악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 응서 장군은 정찰원들을 성 내에 파견하여 인민들과의 련계 하에서 적들의 정형을 탐지하였다. 그러나 앉아서 보고를 듣는 것보다 군사 지식에 밝은 자신이 직접 보는 것이 앞으로 작전 계획을 정확히 짜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때때로 함구문 보통문 부근에 나와서 적정을 정찰하였다.

이 때의 일이였다. 하루는 장군이 성문 앞을 지나려 할 때 성 우에서 《내 오빠는 어디 있길래 나를 찾지 않아요!》 라는 슬픈 목소리가 들려 왔다 이것은 평양부에 속해 있던 기생 계월향 (桂月香)의 목소리였다.

계 월향은 적들이 평양성을 강점하자 적장을 죽임으로써 부모 형제들의 원쑤를 갚는다는 애국적 뜻을 품고 후퇴를 하지 않고 성 내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계 월향은 드디여 적장과 접촉하게 되고 그놈의 관심을 사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계 월향의 힘만 가지고는 사납고 또 가까이에 수 많은 호위병을 널어 놓아 삼엄한 경계망을 펴고 있는 적장을 처단하고 무사히 빠져 나갈 길이 없었다. 계 월향은 이미 평양 부근 주민들에게 용감한 장수로 널리 알려져 있던 김 응서 장군의 도움을 받아 원쑤를 처단할 생각을 하고 드디여 이렇게 하여 장군과의 련계를 맺게 되였던 것이다.

계 월향의 오빠로 가장하여 평양 성내에 들어 간 김 응서 장군은 계 월향의 방조를 받아 평양성을 강점한 간악한 적장 중의 한 놈을 처단하였다. 그러나 계 월향은 탈출 도중에 드디여 자기의 애국적인 일생을 끝마쳤다. 김 응서 장군과 계 월향에 의하여 단행된 애국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에 대한 이야기는 수백년 동안 우리 인민들의 무한한 사랑 속에 전해지고 있다.

김 응서 장군과 계 월향에 의하여 단행된 적장 처단 사건은 적진 내에 커다란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평양성 내에 갇히게 된 적들은 자기 그림자를 보고도 놀랄 지경으로 전전긍긍하면서 1592년 겨울을 보내게 되였다.

이 때에 평양성을 해방하기 위하여 집결하고 있던 아군은 평양성 내에서 추위와 굶주림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적에 대하여 총 공격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1593년 1월 7일 우리 군대는 김 응서 장군이 거느린 부대를 선봉군으로 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김 응서 장군은 우선 소부대를 거느리고 고지에 올라서 성벽을 차지한 적을 맹렬히 공격하다가 적들이 대응하여 나서자 약간씩 후퇴하였다. 적을 유도하여 성 밖으로 내다가 섬멸하자는 것이였다. 이러한 유도 전술을 알아 차리지 못 한 적들은 고리문(古里門)으로 뛰쳐 나와 돌격해 왔다. 아군 부대는 이 때에도 지는 척 하면서 역시 퇴각하였다. 그러니 적들은 더욱 《용기》를 얻어서 추격해 왔다. 이렇게 적들은 김 응서 장군의 계략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드디여 김 응서 장군은 퇴각하다가 급히 말고삐를 돌리여 반격 명령을 내리면서 적진에로 돌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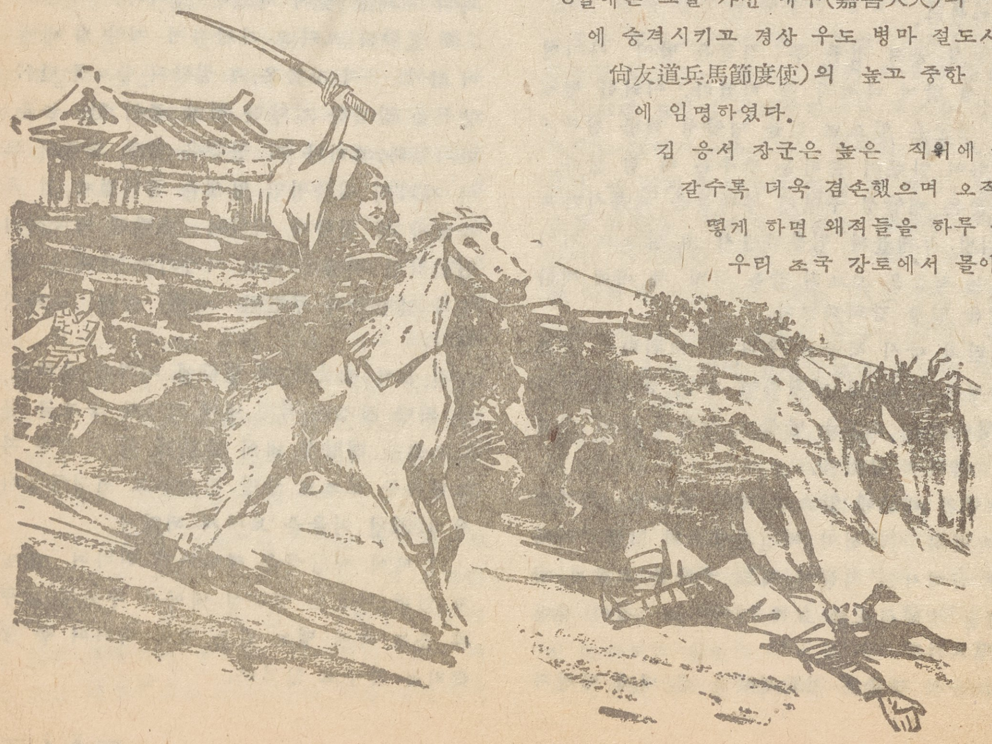
이 때에 좌우측에 매복하였던 아군 부대들이 일제히 반격을 가하니 적들은 급히 쫓기여 성내에로 도주하려 하였으나 미처 들어 가지 못하고 성벽 밑에서 무리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아군의 맹렬한 반공격에 겁을 먹은 성 내의 적들이 황급히 성문을 닫고 말았으므로 성 밖으로 나온 적들은 몰살되고 말았던 것이다.

평양성 해방을 위한 총 공격은 그 이튿날 이른 새벽부터 진행되였다.

김 응서 장군과 리 일(李鎰) 장군이 거느린 우리 부대들은 함구문(含毬門)으로부터 진공하여 성내의 적에게 무리 죽음을 주었다. 적들은 성 내의 좁은 지역에 압축되여 건축물들과 성벽에 의거하여 발악적인 저항을 시도하다가 밤이 어두워지자 무수한 시체와 무기, 마필들을 내버린 채 대동강의 얼음을 타고 황급히 패주하였다.

적들이 일시 강점하였던 평양성은 김 응서 장군이 지휘한 우리 군대의 영웅적 투쟁과 명나라 군대에 의하여 해방되였다.

평양성 해방은 임진 조국 전쟁에서 적들의 패배를 크게 촉진시켰으며 우리의 승리를 군사 정치적으로 확고히 보장함에 획기적인 의의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큰 공훈을 세운 김 응서 장군은 그해 2월에 일약 첨지 중추부사 겸 평안 방어사(僉知中樞府事兼平安防禦使)로 등용되였다. 그 후 패주하는 적을 계속 추격하여 경상도 전선에 나가자 8월에는 그를 가선 대부(嘉善大夫)의 품계에 승격시키고 경상 우도 병마 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의 높고 중한 벼슬에 임명하였다.



김 응서 장군은 높은 직위에 올라갈수록 더욱 겸손했으며 오직 어떻게 하면 왜적들을 하루 속히 우리 조국 강토에서 몰아 낼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그는 부하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대하면서도 매우 너그러웠으며 그들의 처지에 대하여 항상 동정하였으며 보살펴 주었다. 그의 이와 같은 덕성은 경상우도 병사로 있을 당시에 적진 내부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그는 전쟁 중에 잡은 포로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으며 그들을 잘 교양하여 아군 부대에 편입시켰다. 그리하여 김 응서 장군의 부대에 편입될 것을 탄원하여 자기 부대에서 탈출해 오는 일본군들도 적지 않았다. 임진 조국 전쟁 시기 적의 한 장수였던 자가 김 응서 장군에게 투항하여 와서 이름도 김 충선(金忠善)으로 고치고 항복한 일본군으로써 편성된 부대를 거느리고 용감히 싸운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임진 조국 전쟁 시기 김 응서 장군이 거느린 부대 중에는 실로 수천 명의 이러한 《항왜(降倭)》 부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응서 장군은 적의 전술에 더욱 정통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약점과 장점을 판단하여 싸울 수 있었다.

김 응서 장군은 우리 인민들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적과 용감히 싸웠으며 평양성 해방 전투를 비롯한 큰 전투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애국적인 장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 조국 전쟁이 우리의 빛나는 승리로 끝난 후에도 김 응서 장군은 국방상의 중요 직책을 맡고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쳤다.

김 응서 장군은 전후 시기 일본 침략 세력의 위험이 아직도 남아 있을 때에는 경상, 전라, 충청도의 병사를 력임하면서 우리의 국방력을 더욱 정비 강화함으로써 일본 침략자들의 침략 야욕을 완전히 파탄시켰다.

그 후 김 응서 장군은 녀진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숙원을 성숙 못 한 채 1624년 4월 18일 61세를 일기로 자기의 일생을 끝마쳤다.

조선 인민은 그 후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그를 애국적 장군으로서 자랑하며 사랑하여 오고 있다.

의병장들의 격문중에서

왜장 가등 청정(加藤清正)과 남도 가하수(南島加賀守)에게 격문을 보낸다.

—김 응복—

조선은 비록 작으나 례의를 숭상하는 나라이며 일본은 비록 국토가 넓다고 하나 바다 건너의 추악하고 더러운 나라이다.

우리는 우리 대로 살고 너희는 너희 대로 살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풍속과 습관으로 너희는 너희의 풍속과 습관으로, 살아 갈 것이다. …그런데 이 무슨 까닭이냐, 흉악 무도하게도 대군을 함부로 몰아 우리 나라에 기여 들어 왔구나! 네놈들은 참으로 음흉하고 완패스러워 너희의 죄상을 모르고 있다. 이제 너의의 죄를 들어 너희들에게는 죽음만이 있을 뿐 살'길이 없음을 알리노라…

너희가 이미 우리 나라를 침범하였음으로 나라의 원쑤를 갚는 것은 우리 나라 충신들의 의분이요. 너희가 이미 우리의 도읍과 성들을 함락시키고 있으므로 국가의 치욕을 씻는 것은 우리 나라 의로운 선비들의 의분이요, 너희가 이미 우리의 부모들을 학살하였음으로 그 원쑤를 갚는 것은 우리 나라 아들 딸들의 지극한 심정이며 너희가 이미 우리의 형과 누이들을 살륙하였음으로 그 원한을 푸는 것은 갸륵한 동생들의 마음씨이니 그러므로 충신들과 의로운 선비들, 그리고 효자와 갸륵한 동생들이 여기저기서 별떼처럼 일어나 곳곳에서 군사들을 둔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 무리들에게는 반드시 죽음만 있을 뿐 살아 나지 못하게 될 까닭이다. 하물며 하늘까지도 더러운 네놈들을 증오하고 있음에랴! 너희 도적의 무리들이 죽음에 직면하였으니 너희가 비록 살아 남아 있기는 하나 이는 독 안에 든 쥐새끼의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늘은 높아 오르지 못할 것이요, 땅은 험하여 빠져 나가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장차 어디로 도망칠 것이냐…강력한 10 만의 활 멘 군사, 3만의 포를 쏘는 군사, 6만의 창 든 병사를 몰아 곧바로 성 밑으로 진격하여 너희놈의 소굴을 소탕할 것이다. (하략)

의병장들의 격문 중에서

각도에 호소한다!

고경명

임진년 六월 ○○일에 전라도의병장 절충 장군 행 의흥위 부호군 지제교(全羅道義兵將 折衝將軍 行義興衛副護軍知製敎) 고경명(高敬命)은 삼가 각도 수령 및 백성들에게 급히 통고한다.

최근에 나라의 운세가 불행하여 섬 오랑캐가 불의에 침입하였다。처음에는 우리 나라와 약속한 맹세를 저버리더니 나중에는 통채로 집어 삼킬 야망을 품었다。우리의 국방이 튼튼치 못한 틈을 타서 약한 구석을 뚫고 기어들더니 하늘도 무서워하지 않고 저희들 멋대로 치밀고 올라 왔구나!

그런데 우리 장군들은 가름ㅅ길에서 헤매고 있으며 수령들은 도주하여 산 속으로 들어가 숨어 버렸다。

적들의 포위 속에 부모를 버려 둠이 이 어찌 차마 할 노릇이며 임금으로 하여금 나라를 근심케 함이 너희들 마음에 편안하냐? 어찌 수백년 간 교양된 인민들로서 단 한 사람의 의기 있는 사나이가 없단 말이냐?

군대를 끌고 남의 나라에 깊이 들어 옴은 본래 병법에 어긋나는 일이언만 유구한 력사를 가진 이 나라 백성들로써 그런 적들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대로 앉아서 보고만 있을소냐!(중략)

저 땅벌과 같이 추한 것들을 천참 만륙하여 죽이지 못한 탓으로 원쑤들이 서울 안에서 숨을 쉬고 있으나 차일 안에 집을 지은 제비와 무엇이 다르며 경기 일대에서 둥지를 틀고 있으나 우리 속에서 뛰노는 원숭이와 무엇이 다르랴(중략)

옷소매를 떨치고 연단에 뛰여 올라 눈물을 뿌리며 대중을 격려하니 맹수도 사로 잡을만한 용사들이 풍우처럼 몰려 오고 바다를 가르고 태산을 뛰여 넘을만한 력사들이 구름처럼 모여든다。

모두가 강요해서 왔거나 억지로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다。백성된 자로서 충성과 의리를 지키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도리이니 나라의 존망이 위급한 이 때에 어떻게 감히 하찮은 제 목숨을 아끼려고 하겠느냐!

의리를 위하여 떨쳐 나선 군대거니 신분의 귀천과 직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될 바 없으며 사기는 충천하고 장엄하거니 무장의 우렬은 론할 바가 아니다。(중략)

아—각 고을의 수령들과 각 지방의 인사들이여! 어찌 나라를 잊어 버리랴! 마땅히 목숨을 버릴 것이다。

혹은 무기를 제공하고 혹은 군량으로 도와 주며 혹은 말을 달려 선봉대로 나서고 혹은 쟁기를 버리고 논밭에서 떨쳐 일어 나서라! 력량이 미치는 한 모두다 정의를 위하여 나선다면 우리 나라를 위협 속에서 구해 낼 것인바 나는 그대들과 함께 진력하기를 원한다(중략)

호매하고 용감한 사람들은 제때에 시국을 바로 잡아야 하나니 부질 없이 앉아서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우리 백성들은 이 나라의 회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의기와 정력을 쏟으면서 앞장 설 것이다。

나의 진심을 토로하여 널리 고한다。

三도 전체 동포들에게 호소한다

류린석

아、원통하고 통분하다—섬오랑캐와 국내 역적들이 극악한 재화를 빚어 내여 몇천년 훌륭한 문화 전통이 우리에게 와서 끊어지는 것을 차마 어이 보겠으며、三천리 아름다운 강토가 우리에게 와서 옳게 되는 것을 차마 어이 보겠으며 수천만 슬기로운 민족이 우리에게 와서 멸망되는 것을 차마 어이 보겠는가? 우리들의 생전에 이런 극악한 화를 당하고 보니 도리어 살아 있는 것이 한이 되나 죽을 날도 이제 머지 않았는데 어찌 그냥 죽을 수야 있겠는가?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어떻게 생각 하시는고?(중략) 대중의 권고에 못 이겨 나는 의병을 통솔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다。나처럼 쇠약하고 병든 몸이 이러한 중책을 감당하기 어려우나 돌이켜 생각할 때 왜적은 약하지 않은 세력이므로 소수의 의병만으로써는 적을 대항하기 어렵다。반드시 二천만 동포가 한 덩어리로 되고 한마음으로 뭉친 힘이 있어야 하며 二천만 동포가 다 같이 죽겠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그렇게 단결되어야만 사지를 당했어도 다 같이 살 수가 있다(중략)

전국 二천만 인민이 죽기를 다해 싸우면 죽기를 다 하는 데서 살 수가 있고 승리가 있다。이렇게 임금과 신하가 다 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아버지와 자식이 다 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친척과 친우들이 다 같이 행동해서 무릇 우리 관리들과 선비들、농민들과 공인들과 상인들、각 계층 동포들이 원쑤 왜적을 함께 물리치고 국내 역도를 모조리 소탕한 후 부흥의 터전을 튼튼히 다지고 태평 세대의 즐거움을 같이 누리게 하라!(하략)

공산주의전사 뢰봉



지금 중국의 청소년들과 광범한 인민들 속에서는 공산주의 전사 뢰 봉을 향하여 배우자는 운동이 광범히 전개되고 있다. 모 택동 주석은 친필로 《뢰 봉 동지를 향하여 배우자》고 썼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중앙 위원회는 전국 공청 조직들과 청소년들 속에서 뢰 봉을 향하여 배우는 군중적 운동을 조직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 뢰 봉은 어떤 사람이며 중국 인민들과 청년들은 그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 ×

지금부터 23년 전인 1940년 추운 겨울날 뢰 봉은 중국 호남성의 상강 강변에 있는 망성현 안락촌의 한 고용농의 아들로 태여났다.

뢰 봉이 다섯 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는 일본 침략자의 손에 무참히 학살되였다. 아버지가 학살된 후 열 세 살 난 형은 소년공으로 힘에 겨운 로동을 하다가 기계에 다쳐 한 팔을 짤리였으나 돈이 없어 치료도 못 하고 어머니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하나 남은 뢰 봉의 어린 동생마저 굶어 죽고 말았다. 뢰 봉의 어머니는 그 당시 일곱 살 먹은 뢰 봉 하나만이라도 키워 보겠다고 담가라는 지주놈 집에 고용살이로 들어 가 별별 고역을 다 겪고 나중에는 지주놈의 마수에 걸려 릉욕 당하자 들'보에 목을 매고 숨을 거두었다. 한평생 고생 속에서 헤여 나오지 못한 이 착한 어머니는 자기의 죽음으로 지주 계급에게 대해, 낡은 사회에 대해 항거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세상 넓은 천지에 혼자 남은 일곱 살 난 뢰 봉은 그 때로부터 지주네 집 돼지우리에서 살면서 돼지 먹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가 죽도록 일을 해도 지주는 밥 한 술 주지 않고 썩은 날알을 한움큼 던져 줄 뿐이였다. 밤에는 돼지우리 옆의 헛간에서 잤고 겨울에는 추워서 어미 돼지 배'가죽 밑에 기여 들어 가 언 몸을 녹이군 했다.

하루는 뢰 봉이 지주 집 개죽을 훔쳐 먹었다 하여 지주놈은 그의 왼 손을 칼로 찌르고 내쫓았다. 그 때로부터 뢰 봉은 산에 들어 가 산열매를 따 먹으면서 연명해 갔다.

그렇게 하기를 2년 그가 빈사 지경에 처했을 때 그의 고향은 인민 해방군에 의해 해방되였다. 그리하여 뼈만 앙상하게 남은 뢰 봉을 산 밑의 절간 안에서 찾아 냈다.

인민이 주권을 쥔 새 제도 하에서 뢰 봉의 생은 무한히 행복했고 그의 앞길은 양양한 대해처럼 타 틔였다. 그는 처음에 마을의 아동단 단장이 되였다. 그는 어린 동무들과 함께 지주 계급을 반대하는 싸움에 나섰다.

그 후 그는 비로소 학교에 들어 가 인민 학교와 초중 과정을 마쳤다. 16세 되는 해에 그는 사회주의 건설의 대렬에 용약 뛰여 들어 단산호 국영 농장의 뜨락또르 운전수로 일했으며 1958년 당 중앙 위원회가 강철 생산을 증대시킬 데 대하여 호소하자 선참으로 안산에 달려가 자기의 온갖 정력을 강철 생산을 위한 투쟁에 바쳤다.

1959년 12월 군대 초모 사업에 대한 소식을 듣자 그는 용약 탄원해 나섰다. 그의 신장이

작고 체중이 너무 가벼워 불합격이 되였으나 그는 물러 서지 않았다. 그는 《과거를 생각하고 우리 나라 주위에 미 제국주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무기를 잡고 조국을 보위하여야 한다는 심정에 휩싸이군 합니다》 라고 열렬히 탄원하여 끝내 입대의 허락을 받았다.

뢰 봉은 군대 복무 과정에서 계속 모범 전사의 영예를 지녔다.

실천과 생활에서 단련되고 학습에 열중한 그는 자각된 프로레타리아 전사로, 공산주의 전사로 장성해 갔다. 그는 1960년 11월 8일 영광스러운 공산당원이 되였다.

1961년 6월 분대장이 된 뢰 봉은 자기 분대원들을 잘 교양하여 네 가지 잘 하기 운동인 《4호 분대》의 영예를 쟁취했으며 입대 후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그는 2등공, 3등공을 도합 세 번이나 세웠다.

심양 부대 당 위원회에서는 다섯 가지 잘 하기 전사인 《5호 전사》로 《절약 모범》으로 그를 표창하였다. 그는 《모범 공청단원》의 칭호를 수여 받았고 영예롭게도 무순시 인민 대표(대의원)로 당선되였다.

뢰 봉은 1962년 8월 애석하게도 스물 세 살을 일기로 전사하여 자기의 광휘로운 생애를 끝마치였다.

× ×

그러면 중국 인민들과 청년들은 평범한 한 로동 계급의 혁명 전사 뢰 봉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들은 뢰 봉에게서 당과 혁명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불 같은 혁명 정신을 배운다.

뢰 봉의 일기에는 이렇게 씌여져 있다.

《나는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당과 인민 혁명에 영원히 충실한 사람으로 되련다.》

《친애하는 당—나의 자애로운 어머니시여, 나는 영원히 당신의 충실한 아들로 자라날 것이며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나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다.》

《당의 위업과 전 인류의 자유 해방과 행복을 위하여서는 불바다 속에도 기꺼이 뛰여 들겠다. 분골 쇄신하는 한이 있드라도 나의 붉은 마음 변함 없으리라…》

그는 이것을 확고 부동한 생활 신조로 삼고 자기의 모든 활동과 생활에 그 대로 구현하였다.

1959년 어느 비오는 밤이였다. 건설장에 7,200 포대의 세멘트가 야적되여 있는 것을 안 뢰 봉은 그 대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입었던 옷을 벗어 세멘트에 덮었으며 숙사에 달려가 자기 이부자리를 몽땅 걷어다가 씌웠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안 되였다. 그는 즉시 《세멘트 구원 돌격대》를 조직하여 가지고 긴장된 투쟁 끝에 끝내 그 귀중한 국가 재산을 구하였다. 뢰 봉은 자기의 이 행동에 대하여 일기에다 《나는 국가와 당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하여 기뻤다》 라고 썼었다.

또한 중국의 청소년들은 뢰 봉에게서 철저한 계급적 관점에 대하여 배우고 있다.

그는 낡은 사회의 멸망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승리를 확신했으며 자기 동지와 인민들을 열렬히 사랑하였으며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등 온갖 계급적 원쑤들을 증오하고 그것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다. 그는 자기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동지에 대하여서는 봄날과 같이 따뜻하여야 하며…원쑤들에 대하여서는 엄동설한과 같이 랭혹하여야 한다.》

《우리는 상처가 다 회복되였다고 해서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오늘 〈피의 원쑤〉라는 연극을 보았다… 지난날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때 나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야수와 같은 제국주의자들과 착취 계급을 얼마나 증오하였던가!》

《우리 나라의 령토인 대만이 미제와 장 개석 도당에 의하여 여전히 강점되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입을 것을 입지 못하면서 압박과 착취에 시달려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나는 그들의 고통을 결코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혁명하여 고난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고야 말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였기에 그는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그렇듯 열성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인민 해방군에 전력을 다하여 복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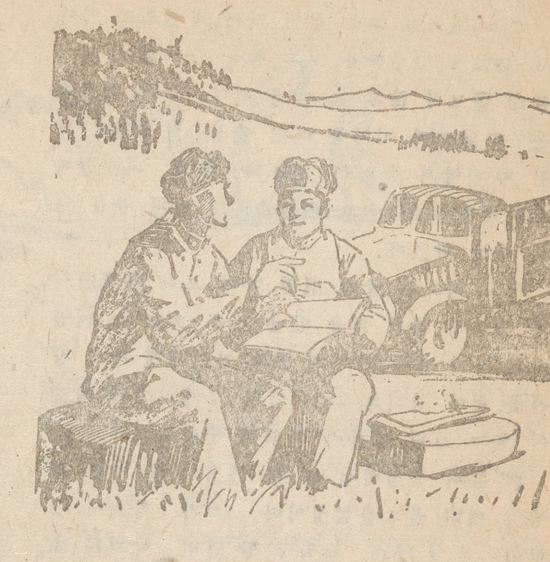
1960년에 100년래의 대홍수가 무순을 위협하였을 때였다. 그가 속한 중대는 수해 방지에 비상 동원되였는데 그만은 신체 쇠약으로 부대에 남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기어코 이에 참가하여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진흙탕을 헤치고 낮과 밤을 이어 배수로를 팠다. 한창 삽질하는 도중에 삽날이 빠졌으나 캄캄한 밤이여서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맨주먹으로 땅을 파기 시작하였다. 손끝이 닳아 터져서 붉은 피가 진흙과 군복을 물들였다. 위생 지도원이 그를 말리자 그는 《증오스러운 원쑤와 같은 홍수를 앞에 두고 어찌 이만한 부상으로 큰 일을 지체시킬 수 있소》 라고 하면서 일을 계속하다가 끝내 정신을 잃고 넘어졌다. 그러나 침대에서 정신을 다시 돌리자 그는 다시 작업장으로 뛰여 갔다. 높은 계급 의식은 인민을 위한 모든 사업에 이렇듯 영웅적 행동을 낳게 하였다.

중국의 청소년들은 뢰 봉에게서 집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는 고상한 집단주의 정신과 로동에 대한 지극한 사랑, 사람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며 소박하고 례절 바른 높은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배우고 있다.

《나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한 방울의 물은 대해로 흘러 들어 가야만 영원히 마르지 않으며 개인은 집단 속에 융합될 때에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나사못은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의 역할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나는 영원히 하나의 나사못으로 될 것이다.》

《한 떨기의 꽃송이가 아름다운 봄을 장식할 수 없으며 한 사람의 발전은 독불 장군과 같고 모두가 다 같이 발전할 때에만 바다를 가르고 산도 떠 옮길 수 있는 힘이 샘솟는다는



진리를 나는 깨달았다.》

무순시에 도시 인민 공사를 세울 때의 이야기이다. 뢰 봉은 인민 공사의 창립에 그 무엇이고 좋은 일을 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찼다. 그는 공장과 부대 생활 기간에 저금한 200 원을 찾아 가지고 화평 인민 공사 당 위원회로 달려 가서 자기의 뜻을 말하고 그 돈을 내놓았다.

《우리는 인민 공사를 사랑하는 동무의 뜻을 감사히 받아 들입니다. 그러나 이 돈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 저금하거나 집으로 부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인민 공사 당 위원회 동무의 말에 뢰 봉의 마음은 몹시 흥분하였다.

《집이라구요? 인민 공사가 바로 내 집입니다.》

그렇다. 그는 자기를 해방해 주고 키워 준 조국을 그리고 사회와 집단을 자기의 둘도 없는 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과거와 오늘을 말하며 인민 공사를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내놓은 돈이니 꼭 받아 달라고 하는 그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인민 공사 동무들인들 어찌 뢰 봉의 이 뜻을 예사로히 대할 수 있으랴!

남을 위한다는 것은 뢰 봉에게 있어서 아주 생활화되였다.

어느 일요일 그는 몸이 아파 병원으로 가다가 들끓는 건설장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 속에 뛰여 들어 벽돌을 운반하였으며 기차를 타면 출선 승무원이 되여 차'바닥과 유리를 청소해 주고 녀성들과 로인들을 도와 주고 손님들에게 차와 물을 따라 주군 하였다.

어느 비오는 날엔 먼길 다녀 오는 아주머니가 뜻하지 않게 비를 만난 것을 보고 그 녀인에게 자기 비옷을 입혀 주고 아이에겐 자기 상의를 벗어 입히고 그 녀인의 보따리까지 빼앗아 들고 그의 집까지 바래워 주었다.

뢰 봉의 품성에서 또 한 가지 배울 점은 학습에 대한 불요불굴성이다. 그가 학교에 입학한 후 9 년간 배워야 할 인민 학교와 초중 과정을 6 년간에 배워 모범 학생이 된 것이라든지 또한 단산호 국영 농장에서 일할 때 불과 1 개월만에 뜨락또르 운전 기술을 능숙하게 배운 것이라든지 그 모든 것은 그의 높은 학습 열의를 말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는 부대 복무 기간에도 모 택동 주석 저작 학습 운동에서 전 련대적으로 이름난 선진 분자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중대 구락부 학습 강사로 무순시 본계로 소학교와 건설 거리 소학교의 교외 지도원을 맡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학습을 돕는 일도 적극적으로 하였다.

그는 참으로 독서를 사랑하는 청년이였다. 뢰 봉에게는 책가방이 하나 있는데 그는 그것을 《소형 도서관》이라고 불렀다. 중대가 어디를 가나 뢰 봉은 그것을 꼭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자신도 짬짬이 읽고 또 누구에게나 빌려 주고 읽혔는데 책을 반환 받을 때는 꼭 책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였다. 출장을 가게 될 때에도 기차 안에서 려객들에게 독보를 해 주고 당 정책을 선전하군 하였다.

그야말로 뢰 봉은 학습에 열렬한 인간이였다.

× ×

여기에 그의 수 많은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다.

학교를 나온 이후 협동'벌에서, 강철 기지에서, 해방군 대렬에서 뢰 봉이 해 놓은 일은 그 하나하나가 평범하다면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나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평범하다고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평범한 것 속에서 위대한 것을 발견한다. 사람들은 거기서 진정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배운다.

박 홍병

당과 조국을 위함이라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요
우리는 열목숨을 가져도
조국과 당을 위함이라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오
우리 더 오래 살아
번영할 조국의 앞'일을 보고 싶고
더 많은 원쑤를 죽이고 싶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쳐
싸울 때는 왔소
우리는 비록 죽을지언정
우리가 그리도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들은 오늘도 래일도
천년이 지나 먼 앞날에도 번영할 것이요

—공화국 영웅 리 대훈의
수기 중에서—



체육 명수 리 한복

긍 지

우리 평양 축구단이 인도네시아의 수도 쟈카르타에 도착한 것은 지난 3월 3일이였다.

우리가 조국을 떠날 때는 먼 산에 백설이 덮이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때였으나 쟈카르타는 숨이 탁탁 막힐 지경으로 무더웠다. 그러니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단번에 겨울과 여름을 맞은 셈이다.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우리를 아주 열렬히 환영해 주었다. 우리가 찾아 간 모든 곳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품'속에서 가장 귀중한 손님에게만 드린다는 생화 화환을 우리들의 목에 걸어 주었으며 매번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우리를 초대하였다.

우리가 류숙한 호텔의 지붕 우에서는 물론 시내의 요소마다에서 공화국기가 힘차게 나붓기고 있었다. 우리가 들었던 호텔 주위에는 항상 우리 선수들을 만나 보려고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흔들며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건강하신가고 물었으며 우리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였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 당과 우리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조선 청년이 된 긍지로 하여 가슴 부풀어 올랐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인도네시아 예술단원들과도 만났는데 그들은 마치 구면의 친구가 오래 동안 헤여졌다가 다시 만난 것처럼 기뻐하면서 우리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그리고 절승 경개 금강산의 경치 등 우리 나라에서 받은 가지가지의 감명 깊었던 인상에 대하여 련신 이야기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예술인들은 《도라지》타령을 불러 우리를 즐겁게 해 주었고 《돈돌나리》, 《옹헤야》 춤도 우리와 함께 추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도처에서 조선 인민에 대한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뜨거운 친선의 정을 느꼈다. 그로하여서인지 야자수 종려나무 우거진 이 낯설은 남방의 풍치도 한결 친숙해 보이는 것이였다.

열 다섯 개의 꼴

3월 7일—

이 날 우리는 메단팀과 첫 경기를 하였다.

첫 경기를 앞둔 우리들의 마음은 몹시 긴장되였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아세아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축구가 강한 것으로서 이름 있는 나라다. 이 날 우리와 대전하게 된 메단팀 역시 이름 있는 강팀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의 영예를 생각하면서 필승의 신심을 더욱 굳게 다지였다.

바로 메단팀과의 첫 경기를 앞둔 그 때 우리는 멀리 조국으로부터 동해의 불사신 가진의 영웅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은 우리 선수들의 용기를 더욱 북돋아 주었다.

《40도의 혹한 속에서 영웅적으로 싸워 이긴 동해의 불사신 가진의 영웅들의 모범을 본받아 우리의 영웅적 조선 청년의 기개를 남김 없이 떨치자》

우리는 이렇게 한결 같은 맹세를 다졌다.

경기는 벽두부터 치렬하였다. 그런데 우리

에게는 곤난도 많았다. 적도의 태양은 이글거리는 불'덩어리처럼 내려 쬐였으며 땀은 비오듯 했다. 보통 온도가 36도 이상이다 보니 경기는 고사하고 나무 그늘에서 있기조차 괴로울 정도였다. 목구멍에서는 불이 이는듯 하였고 물은 쉬임없이 당기였다. 그러나 우리는 온갖 악조건을 무릅쓰고 경기를 진행하였다.

메단팀은 우리를 꺾어 보려고 처음부터 집요하게 달려 붙었다. 그러나 경기의 주도권은 항상 우리에게 장악되여 있었다. 우리 선수들은 우수한 기술과 속도를 보여 주면서 속공 전술로 계속 상대방의 문전에 공격을 들이대였다. 상대방의 문전에서는 빈번히 아슬아슬한 순간이 조성되군 하였다. 전반전이 시작되여 7~8분이 지났을 때였다. 뽈을 잡은 8번 박 두익 선수가 우리 문쪽으로 뽈을 몰고 나오자 상대편 방어수가 유인되여 따라 나왔다. 그 순간 10번 김 봉환 선수가 상대방 방어수가 서 있던 위치로 날쌔게 빠져 나가면서 련락을 받아 문전 10 메터 지점에서 왼발로 찬 것이 보기 좋게 꼴이 되였다.

순간 경기장에서는 《꼴》《꼴》 하고 떠나갈 듯한 환성이 올랐다. 우리는 계속 다섯 개의 꼴을 넣었다. 우리 선수들의 훌륭한 기술에 탄복한 관중들은 우리가 재치 있게 공격을 하거나 꼴을 넣을 때마다 운동장이 떠나갈듯 환성을 올렸으며 열렬한 박수를 보내였다. 경기는 시종 친선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였다.

3월 24일이였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강한 팀인 국가 청년팀과 마지막 경기를 진행하였다. 매 경기마다 그러했지만 이 날도 경기장은 초만원을 이루었다. 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쟈카르타로부터 280 킬로메터나 떨어진 반동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회 부의장들을 비롯한 정부 요인들도 다수 참가하였다.

경기장 상공에는 우리 공화국기가 게양되여 힘차게 나붓기고 있었고 경기장의 마이크를 통하여서는 《김 일성 장군의 노래》와 《유격대 행진곡》이 울려 퍼졌다. 조국으로부터 수만리 떨어진 이 곳에 와서 창공에 휘날리는 공화국기를 보게 되고 《김 일성 장군의 노래》 소리를 듣는 우리의 가슴은 다함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백배 천배의 새 힘이 솟아 올랐다.

남방의 폭양은 더욱 뜨겁게 내려 쪼이나 우리 선수들은 조금도 지친 기색이 없이 용기 백배하여 상대방을 압도하고 계속 공격을 하였다. 뽈은 련속 상대방의 문전에서 맴돌이쳤다. 경기가 한참 고조에 달했을 때였다. 2인 련락으로 뽈을 몰고 들어 가던 7번 한 봉진 선수가 상대방 방어수 한 명을 감쪽 같이 넘기고 몰고 들어 가다가 앞서 가는 10번 김 봉환 선수에게 뽈을 련락하였다. 이제 문전에는 오직 김 봉환 선수를 맡았던 인도네시아 측의 방어수 한 명이 남아 있을 뿐이였다. 뽈을 잡은 김 봉환 선수가 그 대로 돌입할듯한 기세를 취하여 적 방어수를 앞으로 살짝 유인한 순간 그 뒤로 쏜살 같이 돌입하는 한 봉진 선수에게 뽈을 넘겨 준 것을 문전 10 메터 지점에서 그대로 차 넣은 것이 보기 좋게 그물에 철썩 걸리였다. 그러자 장내가 떠나 갈듯한 요란한 환성과 박수가 울리였다. 우리는 이 날 경기에서 두 꼴을 넣었다.

이리하여 우리 축구단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기간 다섯 차례에 걸치는 경기를 진행하였는데 메단팀과는 5대 0, 빠단팀과는 3 대 0, 족쟈카르타팀과는 4대 1, 국가 종합팀과는 1대 0, 국가 청년팀과는 2대 0으로 련전 련승하였다.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우리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에 대하여 《정말 북조선 선수들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한다》고 탄복하면서 아직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던 축구팀 중에서 《제일 성적이 좋다》고 말하였다. 지어 인도네시아의 어떤 출판물은 인도네시아 국가팀이 북조선 팀에게서 받은 그런 공격은 력사상 처음이라고 썼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기 과정에서 시종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교양되고 자라난 체육 선수들의 고상한 도덕 품성도 잘 보여 줌으로써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러기에 인도네시아 축구 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우리 나라 선수들이 경기 과정에 발휘한 고상한 품성에 대하여 《당신들은 경기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이겼다》고 말하였다.

우리들은 이렇게 금번 인도네시아에서의 친선 경기들에서 영웅적 조선 청년의 영예와 기개를 다시금 온 세상에 떨치였다.

체육 기자재 만드는 법 몇 가지

리 명수

체육의 대중화를 위하여 농촌 민청 단체들에서 손 쉽게 갖출 수 있는 몇 가지 체육 기자재 제작법을 아래에 소개한다.

△철봉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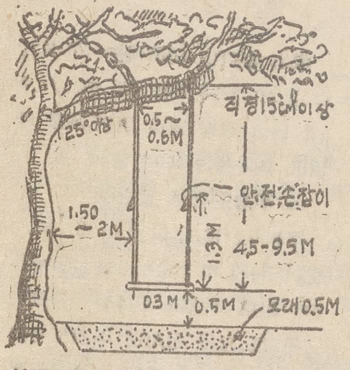
기둥은 소나무, 락엽송 등으로 하고 가름'대는 철재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푸레나무, 참나무, 아까시야나무, 박달나무와 기타 탄력성이 있고 굳은 나무로 대용할 수 있다.

철봉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우선 기둥이 움직이지 않게 땅 속에 들어 가는 부분은 (+)자 형으로 나무를 대여 1 m 이상 깊이 묻어야 한다. 자갈을 넣고 든든히 다지면 더욱 좋다.

가름'대를 나무로 대용할 때에는 기둥의 사이를 1.3 m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자재의 부족으로 높고 낮은 철봉대를 만들 수 없을 경우에는 량 기둥의 안쪽에 일정한 높이의 구멍들을 뚫고 가름'대의 높이를 조절하게 할 수도 있다. 기둥과 가름'대의 접촉부는 못 또는 집철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착시켜 가름'대가 움직이지 않게 하여야 하며 철봉대 밑에는 반드시 모래를 깔아야 한다.

△ 그네

그네는 그네대와 그네줄, 발판,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그네대는 철재 또는 환목으로 만들거나 자연 수목을 리용하여 만들 수 있다. 그네대의 높이는 7~10 m(경기용은 10 m)가 되여야 하며 환목으로 세울 때는 밑을 1.5 m 이상 묻어야 한다. 하단에는 (+)자 형의 틀을 만들어 그네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두 기둥 밑 부분의 넓이는 3.5 m로 하며 웃부분은 1 m의 간격을 두고 두 대의 가름'대로 련결시켜야 한다.



자연 수목을 리용할 때에는 될수록 굵은 나무'가지를 리용하여야 하며 나무'가지의 직경은 적어도 15 cm 이상 되여야 한다.

그네줄은 직경이 3.5 cm 되는 마닐라 로쁘로 하는 것이 좋은데 농촌에서는 삼이나 벼'짚으로 꼰 바'줄로 대용할 수도 있다. 또한 삼과 벼'짚을 섞어 꼬아 사용하는 것도 좋다.

그네줄을 가름'대에 맬 때에는 줄이 움직이거나 끊어질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름'대에 가마니거나 거적을 둘러 싸고 새끼를 동여 맨 후 50~60 cm의 간격을 두고 매야 한다. 가름'대로부터 발판까지는 4.5~9.5 m가 되여야 하며 발판은 지상으로부터 50 c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발판으로부터 1.3 m 높이로 량줄에 안전 손잡이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안전 손잡이는 천으로 손목을 끼여 줄을 쥘 수 있게 고리로 만들며 그네줄에 든든히 매도록 해야 한다.

그네장 밑에는 깊이 50 cm 정도로 땅을 파고 모래를 채우며 그 주변에 돌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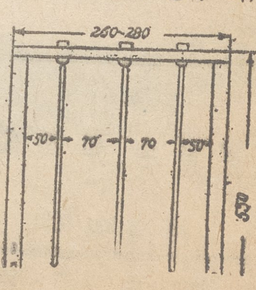
△ 널뛰기판

널뛰기를 하기 위해서는 널파 고임목이 필요하다. 널은 될수록 두터이 3~5 cm가 되는 굳은 나무(참나무가 좋다)로 하며 그 길이는 인민 체력 검정 1~2급은 4 m 이상 소년급은 3.5 m, 넓이는 1~2급에서는 30~35 cm, 소년급에서는 25~30 cm 이상 되여야 한다.

고임목의 높이는 25~30 cm가 되도록 가마니나 혹은 벼'짚을 묶어서 놓는 것이 좋다.

△ 등반봉과 등반줄

등반봉(줄)은 대와 봉(줄)이 필요한데 남자용 봉의 직경은 5 cm이며 봉의 길이는 500 cm 이상이 되여야 한다. 봉은 소나무, 락엽송, 백화나무 등의 각재를



원통형이 되게 깎은 다음 버'질으로 쓸어서 매끈하게 만들어야 한다. 봉의 웃끝에는 걸개를 붙여야 하는데 걸개는 1.2~1.3 cm의 둥근 쇠로 길이 60 cm가 되게 끊어서 그 량끝 20 cm 부분을 불에 달구고 2.5~3 cm의 넓이가 되도록 두드려 펴서 이 부분에 량끝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직경 8 mm 되는 구멍을 뚫고 중심부를 구부려서 봉에 붙일 수 있게 한다. 등반줄은 그네줄과 같은 식으로 꼬아 사용하되 그 직경은 등반봉의 직경과 같다.

대에 련결시킬 때에는 등반대의 가름'대에 쇠고리를 만들고 등반줄을 련결시키면 된다.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가름'대에 직접 쳐매도 된다.

기둥은 각재로 만들 수 있으며 농촌에서는 자연 수목을 리용할 수도 있다. 이 때높이는 4~5 m가 적당하다.

△ 구간

련습용 구간은 돌이나 세멘트 혹은 나무로 대용해도 무방하다.

구간의 가름'대는 길이 1.5~2 m, 직경 4~4.5 cm되는 참나무, 물푸레나무, 자작나무 등으로 대용할 수 있다.

돌을 리용하여 구간을 만들 때에는 중량이 같게 망처럼 둥글게 만들고 중심에 가름'대를 꽂을 수 있게 구멍을 뚫어서 만든다.

세멘트를 리용할 때에는 직경 30 cm, 길이 30 cm의 형(型)을 판자로 만든 후 가름'대를 중심에 넣고 모래와 세멘트를 배합하여 넣고 굳은 다음 형을 떼여 내면 된다. 그 밖에 굵고 무거운 나무(박달나무)를 구간의 형태로 깎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

력기 훈련을 위해서는 20 kg, 21.5 kg, 22.5 kg, 25 kg, 27.5 kg 등의 중량 별로 여러 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주광도장과 고도대

주광도장은 너비 2.5~3 m, 길이 5~6 m 되는 곳을 50~75 cm 정도 파내고 모래를 넣는다.

주광도장은 동시에 주고도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주고도를 위해서는 고도대를 설치하여야 된다.

고도대는 6×6 cm~7×7 cm의 4 각형 소나무, 백화나무 등을 사용하며 량쪽 기둥의 밑바닥에는 무거운 나무로 된 (+)자 형의 틀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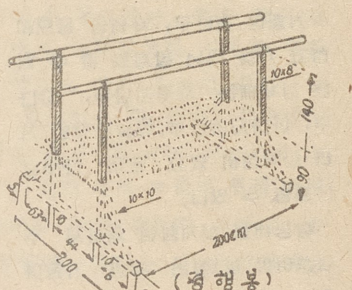
기둥에는 가름'대 걸개를 만드는 데 지면에서 29 cm가 되는 곳으로부터 5 cm마다 하나씩 구멍을 뚫고(구멍 직경 1 cm) 가름'대 걸개를 꽂는다.

가름'대는 한쪽 너비가 3 cm 되는 정삼각주(正三角桂)가 되여야 하며 길이는 364 cm, 중량은 2 kg 이하가 좋다.

가름'대는 백색으로 칠하고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 3~4 개의 흑색선을 그린다. 만약 원통형일 때에는 직경 2.5 cm가 되여야 하며 그 량쪽 끝으로부터 15~20 cm는 정삼각형(3×3×3)으로 깎아야 한다. 가름'대를 걸개 우에 놓았을 때 중심이 2cm 이상 늘어져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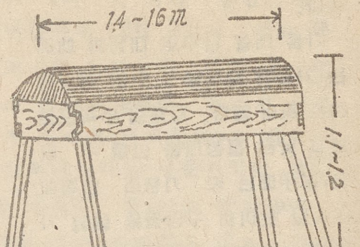
가름'대를 대신하여 노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노끈은 굵기 6~7 mm, 길이 4~3 m의 마사 또는 면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보조 기자재



(평행봉)

인민 체력 검정에 직접 필요한 기자재 외에 일상적으로 체력을 조화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로써 평행봉, 목마 등을 만드는 것이 좋다.



(목마)

청년 생활 편집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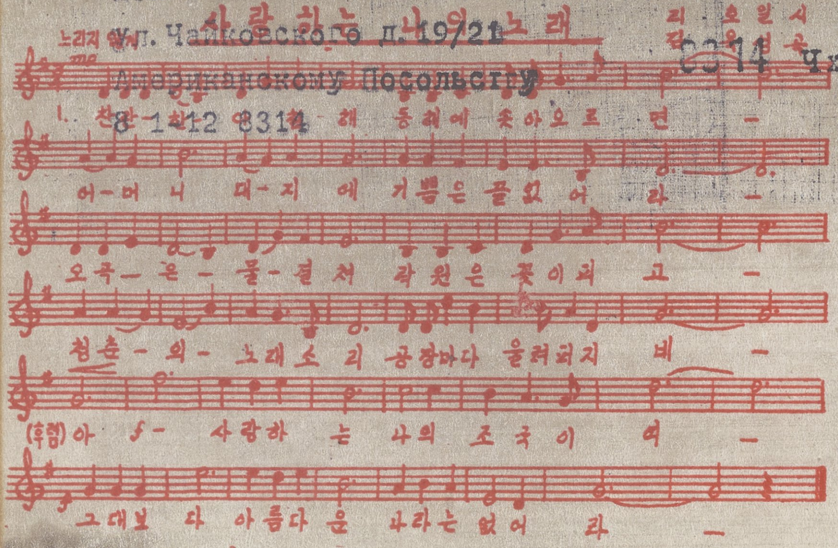
발행소 민청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1963년 5월 10일 인쇄 1963년 5월 15일 발행 전화(38—58, 83—85)

ㄱ—330250 《값 35 전》





2. 백두산 천지에 흰구름 피여 오르면
수리개 자유로이 밀림에 감돌아라
혁명의 홰'불은 가슴에 타오르고
로동당의 두리에 우리들은 뭉쳐나가
(후렴)

3. 슬기론 이나라 영웅의 나래 펼치면
청춘의 심장은 창조로 들끓는다
천리마 시대의 자랑을 노래하며
우리들은 공산주의 미래를 이끌어오
(후렴)

